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 구성 연구



2013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리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 구성 연구

The Study on Learning Materials of Ending Auxiliary
Predicate for Chinese Students



2013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리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선옥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 구성 연구

The Study on Learning Materials of Ending Auxiliary
Predicate for Chinese Student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리 선

리선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 구성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리 선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종결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 구성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제1장에서는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교육 연구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종결 보조용언의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종결 보조용언을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종결 보조용언의 문법적 특징을 정리하고 의미 특징에 따른 중국어 대응표현에 대해 정리 해 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성이나 특징이 다르므로 인하여 종결형 보조용언에 완전히 대응하는 중국어의 문장성분을 찾기 어렵고 번역만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종결형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를 구성하여 보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종결형 보조용언을 더욱더 쉽고 빠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표로 구성하였다. 종결 보조용언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표로 정리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중국어 번역을 첨가하였다. 또

한 표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연습문제 유형이나 활동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종결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 구성, 중국인 학습자, 중국어 대응표현,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 교육 자료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 제 3 절 선행 연구 | 3 |
| 제 2 장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 7 |
| 제 1 절 종결 보조용언의 개념과 특징 | 7 |
| 제 2 절 종결 보조용언의 범주와 종류 | 13 |
| 제 3 장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 표현 | 16 |
| 제 1 절 -아/어 내다 | 16 |
| 제 2 절 -아/어 버리다 | 27 |
| 제 3 절 -아/어 치우다 | 37 |
| 제 4 장 중국인을 위한 종결 보조용언 교육 자료 구성 | 43 |
| 제 1 절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종결 보조용언 | 43 |
| 제 2 절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교육 자료 | 46 |
| 제 5 장 결 론 | 66 |
| 【참고문헌】 | 68 |
| ABSTRACT | 71 |
| 中文摘要 | 73 |

【 표 목 차 】

| | |
|---|----|
| [표 1] 주요 논저에서의 종결 보조용언 유형 | 14 |
| [표 2] 각 학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종결형 보조용언의 현황 | 43 |
| [표 3] 종결 보조용언‘-아/어 내다’의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44 |
| [표 4] 종결 보조용언‘-아/어 버리다’의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45 |
| [표 5] 종결 보조용언‘-아/어 치우다’의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45 |
| [표 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기술의 기본 틀 | 46 |
| [표 7] 보조용언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자료 구성 표 | 47 |
| [표 8] ‘-아/어 내다’의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 | 49 |
| [표 9] ‘-아/어 버리다’의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 | 52 |
| [표 10] ‘-아/어 치우다’의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 | 56 |
| [표 11] ‘-아/어 내다’를 활용한 결합 가능 용언 찾기 연습 | 59 |
| [표 12] ‘-아/어 내다’의 중국어의 대응표현 연습을 통한 의미 파악 | 60 |
| [표 13] ‘-아/어 버리다’의 중국어의 대응표현 연습을 통한 의미 파악 | 61 |
| [표 14] ‘-아/어 버리다’의 부정표현 연습 | 62 |
| [표 15] ‘-아/어 치우다’의 부정표현 연습 | 62 |
| [표 16] ‘-아/어 내다’를 활용한 문장 부사결합 연습 | 63 |
| [표 17] ‘-아/어 버리다’를 활용한 활동방안 | 64 |
| [표 18] ‘-아/어 버리다’의 활동 카드 1 | 64 |
| [표 19] ‘-아/어 버리다’의 활동 카드 2 | 65 |
| [표 20] ‘-아/어 버리다’의 활동 카드 3 | 65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이 쓰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대조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 학습 활용 자료를 만드는 데 있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로서 문장성분에서 서술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서술어에 대한 통사구성과 변이, 쓰임도 다양하다(김소연, 2003:1). 그 중 하나가 보조용언의 용법이다. 보조용언은 화자나 주체의 심리적 태도나 문장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잘 나타낸다. 보조용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선 보조용언의 사용에 오류가 많이 나타나거나 아예 사용을 하지 않게 되고¹⁾ 정확한 감정표현이나 의미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조용언은 독자적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본용언 뒤에 붙어서 본용언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을 말한다. 한국어 보조용언은 그 용법이 다양하고 사용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로 단어형태가 고정되어 있어 문장의 문법 성분이 형태가 아닌 어순에 의해 구분된다(서빈, 2011:1). 그리하여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아예 중국어 단어 속에 한국어 보조용언의 뜻이 담겨있어 따로 문장성분으로 구분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보조용언을 배우고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각 대학에서 출간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1) 최해주(2003)에 의하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를 막론하고 모두 ‘-(으)ㄴ 수 있다/없다’, ‘-(고) 싶다/싫어 하다’, ‘-(고) 있다/계시다’와 같은 몇 개의 보조용언을 지나치게 편중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기타 대부분의 보조용언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재를 분석해보면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 있는 통사적 특징이나 제약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가 보조용언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재에서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 있는 화용론적 상황 제시가 대체로 단편적이다.²⁾ 이와 같이 교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학습자가 보조용언을 학습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한 교수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어학 분야에서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기초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한국어교육에 그대로 응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판별기준이나 분류보다는 정확한 사용을 위해 보조용언의 상(相, aspect)적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樣太)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는 보조용언의 범주 설정이나 국어학적인 측면에서의 형태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고 한국어 교재 분석이나 학습자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용 보조용언을 판별하고 설정하여 교수학습방안을 구성하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총 유학생 수의 약 73.7%³⁾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교육연구에는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조 연구나 개별 보조용언의 교수학습방안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종결 보조용언을 선정하여 다양한 사용양상을 중국어와 대응시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용 활용자료를 제작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결 보조용언 학습 활용 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2) 이경미(2009)은 한국어교재 보조용언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 있는 통사적 특징이나 제약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외국인 학습자가 보조용언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교재에서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 있는 화용론적 상황제시가 대체로 단편적이다.

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자료실 <http://www.immigration.go.kr>

제 2 절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보조용언에서도 종결형 보조용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보조용언 분류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종결형 보조용언 중에서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를 선정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과 범위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 보조용언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 종결 보조용언의 유형을 정리해 본다.

3장에서는 종결형 보조용언인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의 문법적 특징을 정리하고 의미에 따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3장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종결형 보조용언의 교수 학습 활용 자료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의 의의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는 최현배(1937)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어교육학 분야보다는 국어학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보조용언의 범주설정,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행론적 기능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국어학 연구에는 박선옥(2002), 김소연(2003), 배수자(2007), 문미경(2008), 하종복(1996)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박선옥(2002)에서는 국어 보조동사를 대상으로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규명하여 보조동사를 정의하고 그 설정 근거와 구별 준거에 따라 보조동사를 구분하여 ‘(-어 나다), (-

고 말다), (종결형어미)보다/싫다’등은 보조동사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논증하고 개별 보조동사의 상과 양태의 문법적 의미와 화용 의미를 분석하였고 배수자((2007)에서는 보조용언이 쓰인 구문에서 보조용언의 통사론적 특성을 밝히고 최현배(1965)가 세운 보조용언 목록을 가지고 보조용언 판별기준 5가지를 적용하여 새로운 보조용언목록을 작성하고 의미특성을 밝혀내고 그 특성에 따라 보조용언을 재분류 하였다.

종결형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로는 하종복(1996)가 있는데 하종복(1996)에서는 보조동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동사 어미에 따른 분류와 의미에 따른 분류를 하여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동사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 ‘-고 말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이 종결 보조동사들은 대체로 일반적 보조동사 구성과 동일하고 접속동사 구성이나 합성동사 구성과는 확연히 다르므로 분명히 보조동사구성을 이루고 본동사로서의 어휘적 의미와 관련되어 추상화된 문법적 의미를 가지며 상의 의미가 [+종결성]으로 모두 동일하나 양태의 의미는 서로 달라 이를 [강한 의지], [기대], [부담], [행위 수행능력]이라는 네 가지 의미 자질을 통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종결 보조동사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아 추후 연구나 학습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응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모형까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교육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최명선(2009), 이경미(2009), 최해주(2003) 등이 있다. 최명선(2009)에서는 보조용언의 실제 사용빈도를 조사하고,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떤 목록들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보조용언을 선정하고 등급화하여 학습단계별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을 구성하고, 교재를 만들 때 보조용언과 관련하여 어떤 항목들이 먼저 제시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참고가 되지만 개별적 보조용언의 학습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해주(2003)에서는 한국어교재의 보조용언을 분석하고 교육용 보조용언을 선정하여 학습자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선정된 74개의 보조용언에서 초, 중, 고급을 막론하고 학습자들이 초급수준의 일부 보조용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타 보조용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용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보조용언을 쓰거나 비슷한 형태로 혼동하여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의 주된 원인은 보조용언의 다양하면서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든 의미기능들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한국어 교육용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를 활용한 교육방안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오류 발생 원인이 보조용언의 다양하면서도 단정 짓기 어려운 의미 기능들 때문이라고 일축하였고 또한 교육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교수 학습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는 해결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경미(2009)에서는 한국어교재에 실린 보조용언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교재가 대체적으로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 있는 통사론적 특징이나 제약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외국인 학습자가 보조용언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재에서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 있는 화용론적 상황제시가 대체로 단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재 수록 빈도가 높고 보조적 연결어미 ‘-어/아’와 함께 쓰이는 6개의 보조용언을 선정하여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징, 제약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어 보조용언의 교수학습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등급에 따른 보조용언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수 학습 모형에서 제시한 보조용언의 등급기준이 모호하고 초, 중, 고급별 교수 학습 모형이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어 보조용언을 중국어와 대조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전반적인 대응양상에 관한 연구는 이영(2006), 서빈(2011), 오일록(2011) 등 연구가 있다.

이영(2006)에서는 한국어 보조용언의 교육적 의의와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조용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빈도와 사용양상을 살펴보고, 한·중 보조용언의 대조분석을 통해 단계별 보조용언의 목록을 제시하고 교육내용을 위계화 하였으며 현실언어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모형과 교육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조용언을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조용언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보조용언을 정리하고 중국어의 대역어를 표시해 주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이점까지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서빈(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동사를 대조·연구함으로써 양국 간의 언어적 차이를 밝히는 동시에 양국 간의 서로 다른 문법적 표현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제2언어 학습자의 조동사 학습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보조용언의 대조만 이루어져 있을 뿐 한국어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나다’의 중국어 표현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비슷한 쓰임의 보조용언의 차이점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오일록(2011)에서는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어 초급교재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을 기준으로 보조용언을 등급화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를 위한 보조동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모형과 교수 학습 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재분석에서 초급교재만 다루었고 중급, 고급 교재의 현황은 살펴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는 연구에서는 종결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종결보조용언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활용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중국어 학습자가 종결형 보조용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활용자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제 2 장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제 1 절 종결 보조용언의 개념과 특징

종결 보조용언이라고 함은 보조용언을 의미에 의해 유형을 나누었을 때 종결의 의미를 갖는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조용언의 개념은 최현배(1937:131)에서 시작되는데 그는 ‘도움움직씨(보조동사 혹은 조동사)란 것은 제홀로 완전한 풀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으뜸움직씨의 뒤에 붙어서 그 풀이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 이를 풀이 하였고(하종복, 1996:5) 고영근·남기심(2003:121)은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하고 품사를 구별하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라 한다고 하였다. 이주행(1996)에서는 조동사란 본 용언의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의 뜻을 도와주고 본 용언의 서법(mood), 시제(tense), 상(相, aspect)등을 나타내는 것을 돕는 동사라고 정의하였다.

박선옥(2005)에서는 補助動詞는 선행하는 本動詞에 결속되어 통사적으로 독립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하며, 선행하는 본동사에 相이나 樣態와 같은 의미적 첨가를 하여 본동사를 보조한다고 정의내리고 있고 배수자(2007)에서는 보조용언은 통사론적으로는 독립적인 서술어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의미론적으로는 상(相)의미나 양태(樣態)의미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하종복(1996)에서는 보조동사의 개념을 ‘본동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문장 내에서 자립성 없이 본동사를 도와주면서 화자, 주체의 심리 상태와 양태적 요소를 내포하고, 본동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동사’로 규정 하였다.

상기 논의된 정의를 살펴보면 보조용언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본동사에 의존해야하며 상(相)의미나 양태(樣態)의미의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결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형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선행하는 용언에 붙어서 쓰이고 화자나 주체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보조용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손세모돌(1996)에서는 합성어나 복합문의 후행동사와의 구별 기준으로 1) 논항과의 무관성, 2) 내적 분리성, 3) 문장 대용형과의 직접결합 가능성, 4) 선행용언까지의 분리 대응, 5) 동일형태의 선행 용언 사용 가능성, 6) 연속사용 가능성, 7) 의사 분열문 형성 가능성 등 7가지를 기술하였다.

박선옥(2002)에서는 보조용언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1)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結束性, 2) 다른 要素의 삽입, 3) 代用, 4) 省略, 5) 語順 도치, 6) 論項 결정력, 7) 이른바 時制 표시 形態素 ‘-었-’의 사용, 8) 존 대표시 形態素 ‘-시-’의 사용, 9) 보조동사의 연속사용, 10) 보조동사의 구문에서의 위치.

배수자(2007)에서는 보조용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하였다. 1) 분리제약, 2) 동일주어 제약, 3) 생략제약, 4) 연결어미 ‘-서’ 삽입 제약, 5) 대용제약, 6) 주체존대‘-시’ 제약, 7) 부정 범위수식제약, 8) 부사 수식 제약, 9) 이동제약, 10) 보조용언 반복 제약, 11) 보조조사 삽입제약, 12) 시제 선언어미 제약, 13) 논항 상실, 14) 문법적 의미 획득.

학자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보조용언의 특징을 요약해 특징의 개수는 각양 각색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보조용언의 특징은 모두 나와 있다. 본고에서는 학자들이 요약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요약해 보았다.

첫째,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속성. 보조용언은 본용언에 붙어 쓰이는 용언으로서 본용언과 밀접한 결속력을 가진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분리되어 사용되지 못하며 동일한 주어를 가진다.

둘째, 논항 결정력. 보조용언은 논항을 결정하지 못하며 본용언과 동일한 주어를 공유하게 된다. 논항은 특정 시간, 장소, 사람,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흔히 명사에 해당한다. 본용언은 논항에 관여하지만 보조용언은 본용언

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상이나 양태의 의미를 첨가할 뿐 논항에 관여하지 않는다.

(1) ㄱ. 고통을 참아 냈다.

ㄴ. 고통을 참았다.

ㄷ. *고통을 냈다.

예문(1)에서 보이듯이 보조동사 ‘-아/어 내다’가 쓰인 구문 (1ㄱ)은 아주 문법적인 문장이다. 예문 (1ㄴ)도 보조용언인 ‘-아/어 내다’가 쓰이지 않았지만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데 반해 예문 (1ㄷ)에서 본용언을 제거하여 보조용언만 남긴 예문 (1ㄷ)은 비문이 되어 버린다. ‘고통을 냈다’는 문법적으로 쓰일 수 없는 구문이다. 이는 ‘-아/어 내다’가 ‘고통’이라는 논항을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어 내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논항인 ‘고통’에 대한 결정력이 없이 본용언 ‘참다’ 뒤에 붙어 ‘고통을 극복해 이겨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며 ‘참다’와 같은 주어를 공유한다.

셋째, 요소삽입. 보조용언이 쓰인 구문에 다른 요소(부사, 시제표시형태소 -았/었, 존대표시형태소 ‘-시-’, 부정범위수식 등 제약)를 삽입해야하는 경우에는 본용언의 앞이나 보조용언의 뒤에 삽입이 가능하며 본용언과 보조용언사이에는 삽입이 제약된다.

우선 부사어는 반드시 본용언 앞에 삽입되어야 한다.

(2) ㄱ. 영수는 밥을 먹어 버렸다.

ㄴ. 영수는 밥을 빨리 먹어 버렸다.

ㄷ. *영수는 밥을 먹어 빨리 버렸다.

(2ㄱ)에 부사어 ‘빨리’를 삽입하였을 때 보면 (2ㄴ)은 부사어를 본용언 앞에 두어 문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2ㄷ)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사이에 부사

어가 삽입되면서 비문이 되어 버렸다. 이는 보조용언이 쓰인 구문에서 부사어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사이에 쓰일 수 없다.

다음은 존대표시형태소 ‘-시-’와 시제표시형태소 ‘-았/었’은 보조용언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 (3) ㄱ. 선생님은 갖은 고통을 이겨 냈다.
- ㄴ. *선생님은 갖은 고통을 이겼 내다.
- ㄷ. 선생님은 갖은 고통을 이겨 내셨다.
- ㄹ. *선생님은 갖은 고통을 이기셔 냈다.

(3)은 보조용언이 사용된 구문에 존대표시형태소 ‘-시-’와 시제표시형태소 ‘-았/었’을 결합시켜 본 예문이다. (3ㄱ)는 시제표시형태소 ‘-았/었’을 보조용언 뒤에 결합시켰을 때의 예문인데 문장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본용언에 결합시킨 경우인 (3ㄴ)는 비문이 되어버린다. (3ㄷ)는 보조용언에 존대표시형태소 ‘-시-’와 시제표시형태소 ‘-았/었’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문장이 자연스러운 적절한 문장이다. 이에 반해 본용언에 존대형태소를 결합시킨 (3ㄹ)는 문장이 다소 억지스럽고 문법적으로도 비문이 되어 버린다. 이른바 시제나 존대표시 등의 형태소와 같은 것은 가장 뒤에 쓰인 서술어에만 결합하고 앞 부분에서는 생략되는 것이 우리말 문법이다(박선옥, 2002:4).

또한 부정표현은 본용언의 앞에 쓰이거나 보조용언의 뒤에 쓰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쓰이면 비문이 된다.

- (4) ㄱ. 영이는 신문을 안/못 읽어 버렸다.
- ㄴ. 영이는 신문을 읽어 버리지 않았다/못했다.
- ㄷ. *영이는 신문을 읽어 안/못 버렸다.

(4ㄱ)에서처럼 부정표현이 본용언 앞에 놓이거나 (4ㄴ)과 같이 보조용언 뒤

에 놓이게 되면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부정표현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놓이게 되면 (4ㄷ)처럼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여 비문이 된다. 이는 문장에서 부정표현이 본용언에만 부정표현을 적용하거나 보조용언에만 부정표현을 적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서술어 전체에 부정을 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넷째, 대용. 본용언은 분리하여 대용이 가능하지만 보조용언만의 분리대용이나 본용언과 보조용언 전체를 대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대용이란 동일한 언어 표현의 반복을 피하여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5) ㄱ. 영이는 밥을 먹어 버렸고 나는 라면을 먹어 버렸다.

ㄴ. 영이는 밥을 먹어 버렸고 나는 라면을 그리하여 버렸다.

ㄷ. *영이는 밥을 먹어 버렸고 나는 라면을 그리하였다.

ㄹ. *영이는 밥을 먹어 버렸고 나는 라면을 먹어 그리하였다.

(5ㄱ)의 중복되는 용언인 ‘먹어 버렸다’를 대용하는 과정에서 (5ㄴ)은 본용언을 ‘그리하여’로 대용한 경우이고 (5ㄷ)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모두 ‘그리하였다’로 대용하였고 (5ㄹ)에서는 보조용언만 대용처리 하였다. (5ㄴ)은 문장이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에 (5ㄷ)과 (5ㄹ)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되어 버렸다. 박선옥(2002:39)에서는 보조동사의 대용이 불가능한 것은 보조동사가 문법 요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어에서 어휘 요소들은 대용 형이 가능하지만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들은 대용 형으로 대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섯째, 생략. 보조용언이 쓰인 구문에서는 선행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전체생략은 가능하지만 분리해서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앞의 예문을 예로 들어보자

(6) ㄱ. *영이는 밥을 먹어, 나는 라면을 먹어 버렸다.

ㄴ. *영이는 밥을 버렸고 나는 라면을 먹어 버렸다.

ㄷ. 영이는 밥을, 나는 라면을 먹어 버렸다.

(6ㄱ)은 보조용언만 생략하였고 (6ㄴ)은 본용언만 생략한 예문인데 모두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6ㄱ)에서는 ‘밥을 먹어 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6ㄴ)은 ‘버렸다’가 보조용언의 의미가 아니라 본용언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6ㄷ)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전체가 생략되었지만 문법적인 문장이고 (6ㄱ)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여섯째, 어순도치. 보조용언이 들어있는 구문을 어순도치 할 때에는 반드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어순을 도치시켜야 한다.

(7) ㄱ. 영이가 밥을 먹어간다.

ㄴ. 영수가 먹어간다, 밥을.

ㄷ. *영수가 밥을 간다, 먹어.

(7ㄱ) 구문을 어순도치 시킨 예문으로 (7ㄴ,ㄷ)이 있는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어순을 바꾼 (7ㄴ)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분리하여 어순을 바꾼 (7ㄷ)은 문장이 비문이 되어 어색하게 된다. 이로부터 보면 보조용언구문을 어순도치 시킬 때에는 반드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연속사용. 박선옥(2002:48)에서는 모든 보조용언이 연이어 쓰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용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보조용언에서도 ‘-고’와 연결되는 보조용언은 반복되지 않고 주로 ‘-아/어’와 이어지는 보조용언들은 반복현상을 보인다. 보조용언의 연속사용은 주로 동일 형태의 보조용언이 하나의 본용언에 이어져 반복되는 경우, 형태나 의미가 다른 보조용언이 두개 이상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8) ㄱ.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 봐 보실래요?
 ㄴ. 기술을 일찌감치 배워 뒀어 크게 덕을 봤다.
 ㄷ. 불을 켜 두어 버렸다.
 ㄹ. 한 동이 승냥을 다 먹어 버리고 말았다. 『이광수, 흙』⁴⁾

(8ㄱ, ㄴ)은 보조용언‘보다’와 ‘두다’가 각각 두 번씩 겹쳐서 쓰이는데 문어에서보다는 구어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보조용언이 겹쳐서 사용되는 것은 주로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8ㄷ, ㄹ)은 다른 형태의 보조용언이 겹쳐서 사용된 예문인데 화자의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표현해 낼 수 있다. 박선옥(2002)에서는 보조용언이 연이어 두 번 이상 사용되는 것은 상 의미나 양태의미의 강조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의 적절한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제 2 절 종결 보조용언의 범주와 종류

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용언을 지칭하는 용어는 종결, 완료, 끝남 등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결 보조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종결 보조용언의 유형에는 학자마다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최현배(1937), 이주행(1996)에서는 ‘나다, 내다, 버리다’를 종결 보조용언으로 보았고 고영근·남기심(2003)에서는 ‘(-고)나다/내다/버리다/(-고야)말다’를 종결 보조용언으로 보았다. 손세모듈(1996)에서는 ‘버리다, 내다’를 종결 보조용언으로, 박선옥(2002)에서는 ‘내다, 버리다, 치우다’를 완료표현으로, 하종복(1996)에서는 ‘내다, 버리다, -고 말다, 치우다’를 종결 보조동사로, 배수자(2007)에서는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고 말다, -아/어 치우다’를 보조용언으로 보았다.

4)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 <http://124.137.201.234:8080/search>

주요논저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논저에서의 종결 보조용언 유형

| 논저 | 종결 보조용언 유형 |
|---------------|------------------------------------|
| 최현배(1937) | 나다, 내다, 버리다 |
| 이주행(1976) | 나다, 내다, 버리다 |
| 고영근·남기심(2003) | (-고)나다/내다/버리다/(-고야)말다 |
| 손세모돌(1996) | 버리다, 내다 |
| 하종복(1996) | 내다, 버리다, -고 말다, 치우다 |
| 박선옥(2002) | 내다, 버리다, 치우다 |
| 배수자(2007) |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고 말다, -아/어 치우다 |

이상의 논저들을 분석해 보면 ‘-아/어 내다’와 ‘-아/어 버리다’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종결 보조용언으로 보고 있으나 나머지 ‘나다’, ‘먹다’, ‘-아/어 치우다’, ‘말다’는 각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나다’를 종결 보조용언으로 보는 연구는 최현배(1937), 이주행(1976), 고영근·남기심(1993)이 있는데 박선옥(2002)에서는 이를 본용언의 쓰임으로 보고 보조용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먹다’의 경우 최현배(1937)에서는 보조용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박선옥(2002)에서는 종결 보조용언으로 보지 않고 상의 의미는 없고 본동사 행위에 대하여 강세를 두고 부정적인 가치 평가를 원형으로 갖는다고 하였다.

‘-아/어 치우다’를 종결의 의미로 보고 있는 연구는 하종복(1996), 박선옥(2002), 배수자(2007)이다.

‘말다’는 고영근·남기심(2003), 하종복(1996), 배수자(2007)가 종결 보조용언으로 보고 박선옥(2002)에서는 보조용언이 아닌 본용언의 쓰임으로 보고 있다.

앞 절에서 제시한 보조용언의 특징에 의해 ‘-아/어 내다’와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 ‘먹다’와 ‘-지 말다’는 보조용언으로 보이나 ‘나다’의 경우 보조용언이 아닌 복합후사로 보아야 한다.⁵⁾ 또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

5) 박선옥(2002)에서는 ‘나다’는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복합동사로 보아야 하며

는 보조용언은 종결형 보조용언으로서 ‘먹다’와 ‘-지 말다’는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킨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종결 보조용언은 다음과 같다.

| | | |
|----------|-----------|----------|
| -아/어 내다, | -아/어 버리다, | -아/어 치우다 |
|----------|-----------|----------|



‘나다’를 보조동사가 아니라 복합전사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복합동사의 복합후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 3 장 한국어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 표현

한국어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표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연구하고자 하는 종결형 보조용언을 국어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정리하려고 한다. 종결형 보조용언을 크게 문법적 특징과 의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용언과 결합 가능한 본용언과 문장주어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보조용언이 사용된 문장의 부정표현을 정리하고 겹침 표현이 가능하거나 특정된 문장부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함께 정리한다.

셋째, 보조용언의 의미를 상적 의미, 양태적 의미로 나누어 보조용언이 나타내는 상적, 양태적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러한 의미 특징에 따른 중국어 대응표현을 정리한다.

제 1 절 -아/어 내다

1. 문법적 특징

1) ‘-아/어 내다’와 결합이 가능한 용언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결합이 가능한 선행용언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주로 타동사가 있고 타동사 이외의 자동사, 형용사는 모두 결합이 제약된다.

(9) ㄱ. 영수는 드디어 문제점을 찾아냈다.

ㄴ. 죽어가는 환자도 살려 내는 유명한 의사예요.

ㄷ.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 내다니 참 대단해.

ㄹ. 비밀을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보조용언 ‘-아/어 내다’의 쓰임에 의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어야 하고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

을 보일 때 쓰이는 것이므로 (9)를 살펴보면 (9ㄱ)에서는 영수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함을 보여주었으며 (9ㄴ)에서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어려움도 극복하여 살리는 유명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9ㄷ)에서도 본동사 ‘하다’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자기절로 하여 이루어 내는 것으로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 (10) ㄱ. *장난감을 안 사주자 결국 동생은 울어 냈다.
 ㄴ. *영이는 침대에 누워 냈다.
 ㄷ. *꽃이 예뻐 냈다.
 ㄹ. *몇 년 동안 못 본 사이에 철수가 많이 야위어 냈구나.

반면 (10)은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결합이 불가능한 예들이다. (10ㄱ, ㄴ)은 자동사와의 결합 예인데 ‘울다’, ‘눕다’는 동작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자동사로 굳이 노력해서 하지 않아도 가능한 동사이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렵게 이루어냈을 때에만 사용가능한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결합되면 비문이 되어 버린다. (10ㄷ, ㄹ)에서도 문장이 비문이 되는데 ‘예쁘다’는 형용사로서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네이버 국어사전)라는 의미이고 ‘야위다’도 ‘몸의 살이 빠져 조금 파리하게 되다.’의 의미로 쓰여 사물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결합하면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비문이 된다.

타동사도 모두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 의미자질을 가진 유형의 타동사도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결합 시 비문이 된다. 보조용언 ‘-아/어 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루어 냈을 때 사용하는 보조용언으로 이와 반대 의미자질인 어려움이 없거나 선행한 동작으로 인하여 무언가가 생겨나는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 않는 타동사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 (11) ㄱ. *생일을 축하해 내다.
 ㄴ. *지갑을 잃어버려 내다.

ㄷ. *따뜻한 물에 목욕해 냈다.

(11)에서 본용언 ‘축하다’, ‘잃어버리다’, ‘목욕하다’는 모두 어려움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행동에 의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을 보일 때 사용하는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되어 버린다.

또한 보유, 들어감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동사도 ‘-아/어 내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이는 본용언 ‘내다’가 구멍, 자국 따위의 형체변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소리, 냄새를 밖으로 드러낼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안에서 밖으로, 무(無)에서 유(有)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보유, 들어감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동사와 결합되면 의미적 충돌이 일어남으로 비문이 된다.

(12) ㄱ. *책을 서랍 안에 집어넣어 냈다.

ㄴ. *영이는 아무 말 없이 교실에 들어가 내다.

보유, 들어감의 의미자질을 가진 본용언과 결합되어 있는 (12)를 보면 문장이 다소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 (12)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려면 보조용언을 사용하지 않거나 강조의 뜻을 더하고 싶다면 본용언과 반대의 의미자질을 가진 보조용언 ‘-아/어 내다’ 대신에 ‘-아/어 버리다’로 바꾸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2) 문장 주어

보조용언 ‘-아/어 내다’는 모든 인칭에 자유롭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용언이어서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주어와는 결합이 어렵다. 주로 사람이 문장 주어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은 무정물에도 사용된다.

(13) ㄱ. 나는 고통을 끝까지 참아 냈다.

ㄴ. 너는 고통을 끝까지 참아 내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ㄷ. 그들이 고통을 끝까지 참아 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13)은 ‘-아/어 내다’에 어떠한 인칭이 와도 모두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만들어짐을 보여준다. 무정물이 주어가 되는 용례는 (14)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화자가 무정물 주어를 의인화하여 의지를 불어넣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의 주어는 ‘컴퓨터’, ‘디지털 시스템’, ‘새마을 운동’등 무정물이지만 이러한 무정물이 ‘계산을 하는 기능’, ‘신경망을 엮어내는 기능’, ‘만들어 낸 가옥형태’등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의지를 가진 인간이 컴퓨터, 디지털 시스템을 조작하고 작동시켜 얻어낸 결과이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14) ㄱ. 컴퓨터가 평균치를 계산해 냈다.

ㄴ. 이렇듯 디지털 시스템은 전 세계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엮어내면서 놀라운 지식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ㄷ. 새마을 운동이 만들어낸 가옥형태에서 그동안 낡은 것이 야금야금 새것으로 교체되는 중이었다.

3) 부정문

한국어의 부정표현에는 형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짧은 부정문에는 ‘안’, ‘못’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긴 부정문에는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가 있다. 주어의 속성이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고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에는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해야 되며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에는 ‘-지 마라’, ‘-지 말자’를 사용해야 한다.⁶⁾

보조용언 ‘-아/어 내다’가 쓰인 구문을 부정문으로 표현할 때에는 ‘안’, ‘-지 않다’ 보다 ‘못’, ‘-지 못하다’, ‘-지 말다’와 결합할 때 더 문법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이는 ‘안’, ‘-지 않다’는 주어의 속성이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부정으로서 ‘안’,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은 보통 문장주어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거나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일부러 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자질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반대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보조용언 ‘-아/어 내다’가 ‘못’, ‘-지 못하다’, ‘-지 말다’와 결합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는 ‘못’, ‘-지 못하다’는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고 ‘-지 말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에 의한 부정표현으로서 주로 청유문이나 명령문에 쓰이는데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못’, ‘-지 못하다’가 결합하면 스스로의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 내려했지만 그리하지 못하였음의 의미를 나타내고 ‘-지 말다’와 결합 시에는 화자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주체가 그리되지 말기를 바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 (15) ㄱ. ?영이는 그날 일을 안 기억해 냈다.
 ㄴ. 영이는 그날 일을 못 기억해 냈다.
 ㄷ. ?영이는 그날 일을 기억해 내지 않았다.
 ㄹ. 영이는 그날 일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6) 국립국어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p.251

| 부정의 기준 | 부정의 종류 | | |
|-----------------------|--------|---------------|----------------|
| | 짧은 부정 | 긴 부정 | |
| | |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 청유문, 명령문 |
| 주어의 속성이나 의지에 의한 부정 | 안 | -지 않다 | X |
|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부정 | 못 | -지 못하다 | X |
|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에 의한 부정 | X | X | -지 마라 -지 말자 |

ㄹ. 영이가 그날 일을 기억해 내지 말아야 할 텐데.

(15ㄴ, ㄷ)은 영이가 그날 일을 기억해 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에는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15ㄹ)은 영이가 그날 일을 기억해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영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기억해 내지 말았으면 하는 화자의 심리상태만을 표현함으로 문법적인 문장을 이루지만 (15ㄱ, ㄷ)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⁷⁾ 표현이 다소 억지스러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4) 문장부사의 결합

보조용언‘-아/어 내다’의 쓰임에서부터도 알 수 있다시피 보조용언‘-아/어 내다’는 하기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을 때 쓰인다. 그러므로 그러한 양태적 의미와 동일지향적인 부사어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홍사만(2008)에서는 ‘-아/어 내다’에 의해 ‘성취’나 ‘어려움의 극복’을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는 문내에서 여러 부사의 도움으로 문맥이 현현되고 어려움의 극복은 결국 본동사의 동작이나 의미 내용이 성취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내장하고 있다고 보고 결합 가능한 부사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화자의 굳은 결의와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어들과 결합이다.

(16) ㄱ. 기어이 이겨냈다.

ㄴ. 기어코 우승해 냈다.

ㄷ.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ㄹ. 기필코 이끌어내야 할 결론이다.

ㄹ. 꼭 실현해 내야 할 과제이다.

7) (15ㄷ)에 영이에게는 그날 일이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어서 일부러라도 기억해 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이 가능하다. 예: 영이는 일부러라도 그날 일을 생각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ㅂ. 어떻게 해서든 틀린 숫자를 맞추어 내어라.

(16)에 제시된 부사어들은 동작주체거나 화자의 굳은 결의와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류인데 이러한 부사들은 후행하는 피한정어의 의미 내용이 성취됨과 동시에 그러한 사실이 어려운 과정을 치르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다음은 본용언의 지시내용이 어려운 과정의 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종국에 가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남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17) ㄱ. 끝내 조난자들을 구출해 냈다.

ㄴ. 드디어 건물을 완공해 냈다.

ㄷ. 마침내 산 정상을 정복해 냈다.

ㄹ. 급기야 오랜 병마를 이겨 냈다.

ㅁ. 필경 고생한 보람의 결실을 얻어 낼 것이다.

‘끝내, 드디어, 마침내, 급기야, 필경’은 모두 ‘끝장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어들로서 본용언의 행동으로까지 가서 끝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음을 강조하는 부사어들과의 결합도 자연스럽다.

(18) ㄱ. 억지로 만들어 냈다.

ㄴ. 겨우 버텨 냈다.

ㄷ. 가까스로 합격선에 도달해 냈다.

ㄹ. 간신히 알아냈다.

ㅁ. 힘들여 그 일을 이뤄 냈다.

ㅂ. 용케도 왔던 길을 찾아냈다.

또한 어려움을 암시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과도 결합이 가능하고 반대로 ‘쉽게’, ‘용이하게’ 등과도 어울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쉽게 성취

하는 문맥의 의미를 지향함으로 행위자의 능력이나 전개된 여건이 좋았음을 드러낼 때에도 사용한다.

(19) ㄱ.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문제를 풀어냈다.

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를 살려 냈다.

ㄷ. 쉽게 얻어 냈다.

ㄹ. 용이하게(수월하게) 이끌어 냈다.

2.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상 ㄱ 두산동아 1999)에 의하면 보조용언 ‘-아/어 내다’는 동사 뒤에서 ‘-어 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을 보일 때 쓰인다고 정의되어 있다. 보조용언 ‘-아/어 내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는 결과보어 ‘住’, ‘过’, ‘出’, ‘到’ 등이 있다.

1) 상의 의미

보조용언 ‘-아/어 내다’를 손세모돌(1996)에서는 단순한 동작의 끝남이 아니라 ‘완료’에 말합이의 태도가 덧붙여서 나타나는 ‘종결’이라고 하였고 고영근·남기심(2003)에서도 종결로 보았고 이주행(1996)에서는 동작이 끝남을 뜻하는 종결로 보았다. 또한 최현배(1937)에서는 ‘끝남’이라고 하였고 유목상(1980)에서는 ‘끝까지 견디다’의 뜻으로 ‘관철’이라고 보았다. 박선옥(2002:133) 재인용.

(20) ㄱ. 회사는 부도의 위기를 이겨 내고 다시 일어났다.

→ 公司战胜了破产的危机,重新站起来了.

ㄴ.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 냈다.

→ 忍住了磨骨般的痛苦.

(20)에서 보여주듯이 보조용언 ‘-아/어 내다’가 선행동사 ‘이기다’, ‘참다’와 결합하여 부도의 위기, 뼈를 깎는 고통을 참는 일이 지나가게 되어 끝남을 나타내는 종결의 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상의 의미로는 종결, 끝남, 완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 양태의 의미

보조용언 ‘-아/어 내다’도 종결의 상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양태의미도 함께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보조용언 ‘-아/어 내다’가 끝까지 하다, 자발성, 기대부응, 어려움 극복 등의 양태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i. 끝까지 하다

(21) ㄱ. 드디어 그 비밀을 밝혀냈다.

→终于揭出那个秘密了。

ㄴ. 가지를 모두 잘라 냈다.

→剪出所有枝叶了。

보조용언 ‘-아/어 내다’는 어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21)에서처럼 ‘비밀을 밝히는 일’, ‘자르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보조용언 ‘-아/어 내다’는 중국어의 방향보어 ‘出’에 대응된다.

ii. 자발성

보조용언 ‘-아/어 내다’는 그 쓰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주체가 자발성을 띤다.

(22) ㄱ. 그는 온갖 수모를 참아냈다.

→ 他忍住了各种侮辱。

ㄴ. 아저씨는 방수용 비닐을 벗겨 냈다.

→ 大叔揭开了防水塑料。

(22ㄱ)에서는 그가 온갖 수모를 참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수모를 참고 견디어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결과보어 ‘住’에 해당한다. (22ㄴ)에서도 방수용 비닐을 벗기는 주체인 아저씨가 자발적으로 직접 행동을 하여 완성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揭开’로 번역이 된다.

iii. 기대부응

보조용언‘-아/어 내다’는 또 기대에 부응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23) ㄱ. 과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해 냈다.

→ 科学家发现出了新的星星。

ㄴ. 철수는 깨진 유리조각을 몽땅 쓸어냈다.

→ 哲秀把玻璃碎片全扫出了。

(23ㄱ)에서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별을 발견해 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로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주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알아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3ㄴ)에서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깨진 유리조각을 치워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철수가 유리조각들을 쓸어냄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모두 중국어의 방향보어 ‘出’에 대응된다.

iv. 어려움 극복

보조용언 ‘-아/어 내다’는 어려움을 극복해 냈다는 양태의미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사태를 이겨내어 극복해 냄을 보여줄 때 사용된다.

(24) ㄱ. 끝끝내 적의 침략과 억압을 막아 냈다.

→终于抵御住外侮了。

ㄴ. 고통을 끝까지 참아 내다.

→忍住/熬过了痛苦。

(24ㄱ)에서는 적이 침공해 오는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어 어려움을 극복하였음을 보여주는데 보조용언 ‘-아/어 내다’가 중국어의 ‘住’와 대응한다. 이 경우에 ‘住’는 정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적의 침략과 억압이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고 정지되었음’을 의미한다. (24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통이라는 힘든 과정을 참느라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텼다는 의미가 보조용언 ‘-아/어 내다’에 의해 나타난다. 중국어에서는 ‘住’ 혹은 ‘过’에 대응하는데 ‘过’는 ‘넘어가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 고난이나 고통이 이미 지나갔음을 나타낸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특별히 대응표현이 없이도 문장속의 ‘-아/어 내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25) ㄱ. 공포를 이겨 내다.

→战胜/克服恐怖。

ㄴ. 마침내 협의를 이루어 냈다.

→最终达成了协议。

ㄷ. 하나의 사업을 이루어 내다.

→成就一番事业。

(25)에서처럼 보조동사 ‘-아/어 내다’에 대응되는 ‘住’, ‘过’, ‘出’, ‘到’가 있는가 하면 (25)와 같이 특정된 대응표현이 없이도 중국어로는 문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5ㄱ)에서 ‘이겨 내다’는 ‘战胜’, ‘克服’으로 번역이 된다. 또한 (25ㄴ, ㄷ)에서처럼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이루다’와 결합하여 ‘이루어 내다’로 사용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达成’ 혹은 ‘成就’로 사용된다. (25ㄴ)의 ‘达成’에는 중국어의 특성상 다른 문장성분의 첨가가 없이도 한국어의 ‘이루어 내다’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达成’은 직역하면 ‘달성’으로 (25ㄴ)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다’의 뜻을 담고 있고 ‘成就’는 ‘(사업상의) 성취, 성과, 업적; (주로 사업을) 완성하다, 이루다’는 뜻으로 (25ㄷ)에서는 ‘하나의 사업에서 성취를 내어 성공하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아/어 버리다

1. 문법적 기능

1) ‘-아/어 버리다’와 결합이 가능한 용언

김소연(2003:34)에서는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여러 보조용언 중에서 가장 문법성이 강한 용언이라고 하였다. 손세모돌(1996:198)에서는 자동사, 타동사, 순간동사, 사동형 동사, 피동형 동사, ‘형용사+지다’형 동사들은 두루 결합이 가능하고 ‘명사+하다’형의 동사들 가운데서도 결합이 가능한 것이 일부 있다고 하였으며 형용사 중에서는 동사처럼 ‘-ㄴ다’의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6)⁸⁾ ㄱ.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어 버렸다.

ㄴ. 그 물건을 훔쳐 버렸다.

ㄷ. 그 공을 차 버리지 그래.

ㄹ. 껌질을 벗겨 버리면 좋아요.

ㅁ. 사슴이 사자에게 먹혀 버렸어요.

ㅂ. 몰라보게 예뻐져 버렸네.

ㅅ. 입장이 난처해져서 거짓말해 버렸다.

ㅇ. 몰라보게 늙어 버렸다.

8) 손세모돌 예문입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26ㄱ)은 자동사의 예이고 (26ㄴ)은 타동사, (26ㄷ)은 순간동사, (26ㄹ)은 사동형 동사, (26ㅁ)은 피동형 동사, (26ㄴ)은 ‘형용사+지다’형 동사, (26ㅅ)은 ‘명사+하다’형 동사, (26ㅇ)은 ‘-ㄴ다’의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와의 결합예문으로서 모두 문법적인 문장으로 ‘버리다’와의 결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와 결합이 불가능한 용언이다.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와 결합이 제약되는 용언에는 대표적으로 형용사가 있고, 동사에서도 [+생김]이나 [+긍정]의 자질을 가지는 동사들은 결합이 제약된다.

앞에서 제시한 일부의 형용사를 제외하고 ‘-아/어 버리다’와 형용사가 결합할 때에는 비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7) ㄱ. *꽃이 예뻐 버렸다.

ㄴ. *모든 것이 새로워 버렸다.

ㄷ. *꽃샘추위에 새싹이 움츠려 버렸다.

(27)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형용사와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가 결합되면 비문이 되어 버린다. 이는 ‘예쁘다’, ‘움츠리다’는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어떠한 상태가 끝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와 형용사가 결합 될 때에는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아/어 버리다’와 결합이 제약되는 용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김]이나 [+긍정]의 자질을 가지는 동사들과 ‘-아/어 버리다’와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로 생각될 수 있는 동사들이다.

[+긍정]의 자질: 가리키다, 꺾다, 꾸미다, 듣다, 배우다, 부리다, 생기다, 이루다, 조르다, 주다, 준비하다, 지키다, 찡그리다, 창기다...

반대 방향성: 다가오다, 다다르다 ...

다만 이러한 단어들도 일정한 부사어가 개입하면 결합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사어 ‘일부러, 미리, 일찌감치’ 등이 개입하면 그러하다.

- (28) ㄱ. 나는 {일부러/일찌감치} 그런 어려움을 전부 겪어 버렸다.
 ㄴ. {일부러/미리}내 물건을 챙겨 버렸어.
 ㄷ. 그 아이를 {일부러} 내가 길러 버렸다.

(28)에서처럼 일정한 부사어와 결합하면 결합제약에서 자유로워져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2) 문장 주어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인칭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유정물에서만 그 결합이 자연스럽다.

- (29) ㄱ. 영이가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ㄴ. 나는 과제를 다 해 버렸다.
 ㄷ. 너는 가방을 팽개쳐 버리고 어딜 가니?

예문에서처럼 문장주어의 인칭이 몇 인칭이든 상관없이 문장은 자연스럽다. 주어 또한 모두 유정주어인데 가끔 무정주어에서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적은 경우이다.

- (30) ㄱ. 눈이 그쳐 버렸다.
 ㄴ. 바람이 멈춰 버렸다.

3) 부정문, 동일형태 결합문, 명령문

i. 부정문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가 쓰여진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려고 할 때 모든 부정문이 다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소연(2003)에서는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본용언과의 구성이 ‘-어 버리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소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였지만 장미라(2006)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 단형 부정형은 실현되지 않지만 장형부정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김효신(2007)에서는 짧은 부정이든 긴 부정이든 부정소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쓰이지 않으면 문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 ㄱ. *순이가 밥을 안 먹어 버렸다.

ㄴ. ?순이가 밥을 먹어 버리지 않았다.

ㄷ. *순이가 밥을 못 먹어 버렸다.

ㄹ. *순이가 밥을 먹어 버리지 못했다.

(32) ㄱ. *동생은 밥을 먹어 안 버렸다.

ㄴ. 동생은 밥을 먹어 버리지 않았다.

(31)는 김소연(2003:36)에 사용된 예문인데 (31ㄱ, ㄷ, ㄹ)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보았고 (31ㄴ)은 비문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미라(2006:46)에 제시된 (32)에 보면 단형 부정인 ‘안’과 결합되면 비문이 되지만 장형부정인 ‘않았다’와 결합 시에는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김효신(2007)에서는 어떠한 부정형식도 모두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선행용언과 부정소, 주어와 선어말어미에 따라 통합적으로 통사적 제약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알 맞는 상황이 주어지고 일정한 형태소와 결합한다면 부정소와의 결합은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단형부정소와의 결합예문에 대해 알아보자.

- (33) ㄱ. ?나는 일을 안 해 버렸다.
 ㄴ. ?나는 일을 못 해 버렸다.
 ㄷ. 나는 그 일을 안 잊어 버리겠다.
 ㄹ. 나는 그 일을 못 잊어 버리겠다.

(33ㄱ, ㄴ)은 문법적인 문장으로는 보이나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장들은 아니다. 그러나 시제형태소 ‘-았/었-’을 결합시키면 (33ㄷ, ㄹ)처럼 문장이 자연스럽게 된다.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 뒤에 시제형태소 ‘-았/었-’이 결합되면서 (33ㄷ)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고 (33ㄹ)은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일상대화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표현들이고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보면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가 단형 부정소 ‘안’과 ‘못’과의 결합이 완전히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록 모든 구문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구문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구문으로서 결합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김효신(2007)에 의하면 실제로 말뭉치 용례에서는 ‘-어 버리다’가 부정소 ‘안’과 ‘못’이 어울려 사용된 용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 (34) ㄱ. 밥을 먹어 버리지 않았다.
 ㄴ. 밥을 먹어 버리지 못했다.
 ㄷ. 밥을 먹어 버리지 말자/마라.
 ㄹ. 이 밥은 먹어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ㅁ. 밥이 너무 많아서 다 먹어 버리지 못하겠어.
 ㅂ. 이 밥을 다 먹어 버리지 말고 조금 남겨두자.

(34)은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가 장형부정과 결합한 경우인데 (34ㄱ, ㄴ, ㄷ)은 문법적인 문장이긴 하나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34ㄹ, ㅁ, ㅂ)과 같이 일정한 상황을 제시해 주면 문장은 훨씬 자연스러워 진다.

ii. 동일 형태 결합 사용 문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는 본동사 ‘버리다’뒤에 붙어 겹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만 가능하며 다른 보조용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35) 쓸데없는 물건들은 다 버려버려!

위의 (35)는 선행동사 ‘버리다’와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가 결합되어서 사용된 예인데 강조의 표현을 나타내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더 강조하여 ‘쓸데없는 물건들은 다 버려’보다 버리는 행동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iii. 명령문

명령문은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는 명령문구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하대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를 들어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가 문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36) ㄱ. 너 집에 가 버려/버려라.

ㄴ. 이 곳 쓰레기들을 다 치워 버리시오!/버리세요!

(36ㄱ)은 국어 직접 명령문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다소 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문으로서 화자보다 나이나 신분이 낮은 아랫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며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너의 집으로 가라’는 의미에 화자의 격분함이 더해져서 ‘너’를 현재위치에서 쫓아내고픈 심정을 표현한다. (36ㄴ)은 명령문 이긴 하나 상대높임법이 첨가되어 비교적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다. 이는 보통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거나 문서형식으로 공고를 써 붙일 때 쓰인다.

4) 문장부사의 결합

보조용언‘-아/어 버리다’는 화자나 청자, 또는 제3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인다. 김효신(2007:30)에서는 부사어의 경우 대부분이 선행용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미완료 의미를 지닌 부사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사어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37) ㄱ. 과거의 모든 것을 무작정 덮어 버렸다.

ㄴ. 다행히 동생이 밥을 다 먹어 버렸다.

ㄷ. 불행하게도 오늘 늦잠을 자 버렸다.

ㄹ. 방학 때 마음 놓고 놀려고 일부러/미리 숙제를 다 해 버렸다.

또한 김효신(2007:30)에 의하면 말뭉치 사용 용례에서 보조용언‘-아/어 버리다’와 비교적 결합빈도가 높은 부사는 ‘차라리, 빨리, 금방, 일부러, 결국, -까지, 미리, 나도(아무도) 모르게’등이 있다.

(38) ㄱ. 버스는 이미 떠나 버렸다.

ㄴ. 금방 잠들어 버렸다.

ㄷ. 차라리 찢어 버려요.

2.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중 ㅂ~ㅇ두산동아 1999)에 의하면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동사 뒤에서 ‘-아/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하였다.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중국어에서 일 대

일로 모두 대응이 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중국어의 결과보어(结果补语) ‘掉’, ‘完’, ‘光’과 대응한다. 여기에서도 결과보어 ‘掉’의 의미와 가장 흡사하다.

1) 상의 의미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는 ‘종결’, ‘끝남’, ‘완결’, ‘끝남 강조’의 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9) ㄱ. 비를 맞아 바지가 젖어 버렸다.

ㄴ. 노트북을 새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ㄷ. 긴 머리를 단발머리로 잘라 버렸구나.

ㄹ. 친구들과의 수다로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버렸다.

(39)에서와 같이 ‘비를 맞아 바지가 젖은 일’, ‘노트북을 새것으로 바꾸는 행위’, ‘긴 머리를 단발머리로 자른 행위’, ‘친구들과의 수다로 스트레스를 모두 날리는 행위’는 이미 모두 이루어져 끝나서 그 일이나 행위자체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는 종결이라는 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양태의 의미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는 ‘종결’의 상의미를 나타내지만 여러 가지 양태 의미자질도 가지고 있다. 문맥의 맥락에 따라 화자나 청자, 혹은 제3자의 ‘생각에 어긋남’, ‘부담제거’ 혹은 ‘악 처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i. 제 3자의 생각에 어긋남

(40) ㄱ. 나는 가진 돈을 다 써 버렸다.

→我把钱都花完/掉/光了。

ㄴ. 친구들이 다 가 버렸다.

→朋友们都走掉/光了。

ㄷ. 밥을 동생이 다 먹어 버려서 다시 지었다.

→妹妹把饭都吃掉/光了, 所以重做了。

(40ㄱ)에서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없다’는 뜻으로 중국어에서는 결과보어인 ‘完’, ‘掉’과 형용사 ‘光’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完’은 ‘끝나다’의 뜻이 강하고 ‘掉’는 ‘떨어지다’의 의미가 강하고 ‘光’은 ‘깨끗이’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서 없음을 말하려는 (40ㄱ)은 중국어로 번역 할 때 ‘完’, ‘掉’, ‘光’으로 번역이 되지만 ‘버렸다’가 들어간 문장의 억양을 더욱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完’보다는 ‘掉’, ‘光’이 더 적절하다. 그것은 ‘完’으로 해석하면 ‘돈을 다 썼다’와 ‘돈을 다 써 버렸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0ㄴ, ㄷ)에서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밥이 남겨져 있었으면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고 ‘친구들이 갔거나’, ‘밥이 없어서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掉’와 ‘光’으로 모두 번역이 되지만 ‘버렸다’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 내려면 ‘掉’로 ‘-아/어 버리다’를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

ii. 부담 제거

(41) ㄱ. 나는 숙제를 다 해 버리고 놀러 갔다.

→我把作业写完后出去玩了。

ㄴ. 그 일을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

→这么快就把那件事情做完了吗?

(41)에서는 모두 ‘숙제를 해야 하는 부담감, 그 일을 끝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숙제를 하는 행위, 일을 끝내는 행위’를 하여 화자가 부담감에서 해소되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부담되는 일을 ‘끝냄’으로서 부담을 제거하였기에 ‘掉’, ‘光’으로 번역이 되기보다는 완료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는 ‘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iii. 약 처리

(42) ㄱ. 회사가 망해 버렸어요.

→公司倒掉了。

ㄴ.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잊어 버렸어요.

→忘掉交作业的事情了。

(42ㄱ)에서는 회사가 망해서 없어짐으로 나쁜 결과로 이어 졌으며 (42ㄴ)에서도 제 시간에 제출해야 할 과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약 처리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는 중국어에서 결과보어인 ‘掉’에 대응한다.

이처럼 중국어와 대응되는 구문도 있지만 특정한 문장성분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3) ㄱ.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취해 버렸지요.

→完全被这美丽的旋律给陶醉了。

ㄴ. 새로 산 가방이 없어져 버렸다.

→新买的包不见了。

(43)에서는 ‘버렸다’는 문장성분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대응하는 부분을 딱히 찾아 낼 수가 없게 된다. (43ㄱ)에서 ‘취해 버렸지요’에 해당하는 부분은 ‘陶醉了’가, (43ㄴ)에서 ‘없어져 버렸다’가 중국어의 ‘不见了’와 대응되면서 ‘버렸다’만의 대응 짝을 단독으로 찾기 어렵다.

제 3 절 -아/어 치우다

1. 문법적 기능

1) ‘-아/어 치우다’와 결합이 가능한 용언

보조용언‘-아/어 치우다’는 다른 종결보조용언에 비해 결합이 가능한 용언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⁹⁾. 몇몇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타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고 기타 자동사나 형용사와의 결합은 제약을 받는다.

(44) ㄱ. 고기를 3인분이나 먹어 치웠다.

ㄴ. 큰 집을 팔아 치웠다.

ㄷ. *동생은 큰 소리로 울어 치웠다.

ㄹ. *동생은 크면서 예뻐 치웠다.

(44ㄱ, ㄴ)는 타동사 ‘먹다’, ‘팔다’와 결합한 예문인데 모두 행위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어 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보여주지만 (44ㄷ, ㄹ)에서는 자동사나 행위수행능력이 없는 형용사와 결합되면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이 결합 가능한 용언이 제한적이어서 보조용언‘-아/어 치우다’는 ‘해치우다, 때려치우다, 걷어치우다, 집어치우다’등 하나의 단어로 이미 사전에 등재돼 있기도 하다(장미라, 2006:46).

2) 문장 주어

보조용언‘치우다’와 결합 가능한 용언이 행위수행능력을 가진 용언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어도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주어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45) ㄱ. 미션이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기록을 갈아 치웠다.

ㄴ. 동생은 숙제를 얼른 해 치웠다.

9) 박선옥(2006:151)에서는 보조동사 ‘치우다’는 결합할 수 있는 선행동사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이른바 몇몇 타동사 선행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제약 때문에 논항 결정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45ㄱ)은 선행동사 ‘갈다’가 이미 있는 세계기록을 다른 새 기록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쓰여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와 결합함으로써 주체인 ‘김연아’가 세계기록을 가는 행위를 수행하고 끝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5ㄴ)도 숙제를 해 치우는 주체가 동생으로서 숙제를 하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끝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을 구성한다. (46)처럼 ‘눈’, ‘컴퓨터’는 무정물로서 행위수행능력이 없는 주어는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46ㄴ)에서처럼 한국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문법적인 문장이 가능하다. 이는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와 ‘-아/어 버리다’가 모두 중국어의 결과보어 ‘掉’로 번역이 가능하며 한국어에서도 두 보조용언이 비슷하게 쓰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46) ㄱ.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와 치웠다.

→ *今天早上开始雪下掉了。

ㄴ. *컴퓨터가 고장이 나 치웠다.

→ 电脑坏掉了。

3) 부정문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아/어 버리다’보다 부정소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47) ㄱ. 라면을 아직 안 먹어 치웠다.

ㄴ. 쓸데없는 책을 왜 걷어치우지 않았니?

ㄷ. 라면을 못 먹어 치우겠다.

ㄹ. 아직 집을 팔아 치우지 못했다.

ㅁ. 밥을 다 먹어 치우지 말자/마라.

(47)에서는 한국어 부정법의 여러 가지 형태를 모두 결합해 보았는데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47ㄱ, ㄴ)은 주어의 속성이나 의지에 의한 부정표현이고 (47ㄷ, ㄹ)은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요인에 의한 부정표현이고 (47ㅁ)은 말

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에 의한 부정표현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본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고 주어도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유정주어와만 결합이 가능하므로 어떠한 부정 형태든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4) 문장부사와의 결합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대부분의 부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와는 결합이 제약된다.

(48) ㄱ. *고기 3인분을 아직 먹어 치웠다.

ㄴ. 과제를 얼른 해 치웠다.

ㄷ. 삼촌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직장을 당장 때려치웠다.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아직’과 결합하면 (48ㄱ)과 같이 비문이 되어 버린다. ‘-아/어 치우다’가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완료의 의미를 지닌 부사와는 결합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사어와는 결합이 자유롭다.

2.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하 스~ㅎ두산동아 1999)에 의하면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쉽고 빠르게 해 버림을 나타내는 말로서 ‘-아/어 버리다’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그에 비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때 사용한다. ‘-아/어 치우다’는 중국어의 결과보어 ‘掉’, ‘完’에 대응한다.

1) 상의 의미

‘-아/어 치우다’를 보조용언으로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보조용언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아/어 치우다’를 보조용언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종결보조용언으로 보는 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현배

(1937), 이주행(1996), 손세모돌(1996)등에서는 ‘-아/어 치우다’를 보조용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종복(1996)에서는 종결, 박선옥(2002)에서는 완료, 배수자(2007)에서는 종결로 보고 있다.

(49) ㄱ. 숙제를 얼른 했다.

ㄴ. 숙제를 얼른 해 치웠다.

(49ㄱ)에서는 숙제를 하는 행위를 진행하였다는 단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49ㄴ)에서는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가 쓰이면서 화자가 단순히 숙제를 하였다는 의미보다는 숙제를 이미 다 하여 그 행위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종결상’을 지니는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 있다.

2) 양태의 의미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단순히 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양태의미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박선옥(2002)에서는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가 부담제거, 강세, 화자의 의지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 배수자(2007)에서는 종결의 강조, 긍정적인 평가, 주어의 의지 세 가지로 보고 있고 하종복(1996)에서는 강한 의지, 기대, 부담제거, 행위수행능력, 시원함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가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부담제거, 종결의 강조, 화자의 의지, 시원함 네 가지로 보고자 한다.

i. 부담제거

(50) ㄱ. 엄마: 집에 밥이 있는데 피자를 시킬 수는 없잖니.

아들: 아까 남은 밥을 제가 다 먹어 치웠는데요.

→ 妈妈: 家里还有饭呢, 怎么叫比萨呀?

儿子: 刚才我把剩饭全吃掉了。

ㄴ. 영이는 과제를 해치웠다.

→ 小英把作业做掉了。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부담을 제거하는 양태의미를 나타내는데 (50ㄱ)에서는 피자를 시키고는 싶지만 아직 밥이 남아있어 부담스러워 하는 엄마의 부담을 아들이 이미 밥을 다 먹어 없애 부담이 사라졌음을 나타내고 (50ㄴ)에서도 영이가 부담이라고 생각되는 과제를 모두 해 버림으로서 심적인 부담을 덜어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결과보어 ‘掉’에 해당한다. 여러 측면에서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와 비슷하게 쓰임으로 중국어에서도 비슷한 대응양상을 보인다.

ii. 종결의 강조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또한 종결을 강조하는 양태의미도 나타낸다.

(51) 영이는 과제를 했다.

(51)은 (50ㄴ)에서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를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구문이다. ‘-아/어 치우다’가 들어있는 구문과 비교해 볼 때 (51)는 단순히 영이가 과제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50ㄴ)은 그 사실이 이미 끝남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화자의 양태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iii. 화자의 의지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어떠한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한 화자나 제삼자의 확고한 의지도 함께 표현해 낸다. 결합가능한 주어가 행위수행 능력이 있는 주어이고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와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여 끝내려는 화자나 제삼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52) ㄱ. 사장님은 재무이사를 갈아 치웠다.

→老板换掉了财务理事。

ㄴ. 이번 프로젝트는 빨리 해 치우자.

→赶紧做完这个项目吧。

(52)에서는 재무이사를 갈아 치우려고 하는 사장님의 의지,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여 끝내려는 화자의가 드러난다. 중국어표현으로는 결과보어 ‘掉’, ‘完’에 대응하지만 보여주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는 많이 표현이 되지 않는다.

iv. 시원함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는 ‘-아/어 버리다’, ‘-아/어 내다’와 같이 ‘종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 끝냄이 짧은 시간에 쉽게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 시원하다고 느껴지게 한다.

(53) ㄱ. 숙제를 얼른 해 치웠다.

→赶紧把作业写掉了。

ㄴ. 안 타는 자전거를 팔아 치웠다.

→把不骑的自行车卖掉了。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가 쓰인 (53ㄱ)을 살펴보면 숙제를 하는 일을 얼른 끝냄으로 하여 속이 시원해진 느낌을 받게 한다. (53ㄴ)에서도 자전거를 파는 일을 해버림으로 부담이 제거되어 속이 시원함을 표현한다. 이때에도 중국어에서는 결과보어 ‘掉’에 해당하지만 ‘-아/어 버리다’와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그 끝냄이 짧은 시간에 쉽게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 시원하다고 느껴지게 하다’의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 4 장 중국인을 위한 종결 보조용언 교육 자료구성

본장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 교재에서 종결형 보조용언을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 교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국인을 위한 종결 보조용언 교육 자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제 1 절 한국어교재에 제시된 종결 보조용언

현재 대학기관에서 사용 중인 『이화 한국어』, 『연세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경희대 『한국어』,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서강 한국어』 총 6개 교재의 최근에 출간된 버전을 선정하여 종결 보조용언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의 문법 제시설명 형태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법 활용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은 각 학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종결 보조용언의 현황이다.

〈표 2〉 각 학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종결형 보조용언의 현황

| | -아/어 내다 | -아/어 버리다 | -아/어 치우다 |
|------|----------------|-----------------|-----------|
| 이화대 | 『이화한국어 5』 4단원 | 『이화한국어 3-1』 | 『이화한국어 6』 |
| 연세대 | | 『연세한국어 3-2』 | |
| 서울대 | | 『한국어2』 | |
| 경희대 | 『한국어 고급Ⅱ』 | 『한국어 중급Ⅱ』 | 『한국어 고급Ⅱ』 |
| 성균관대 | | 『배우기 쉬운 한국어』 4급 | |
| 서강대 | 『서강 한국어 5B』 3과 | 『서강 한국어4B』 | |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보조용언 ‘-아/어 내다’를 다루고 있는 교재는 『이화한국어 5』와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고급Ⅱ』, 『서강 한국어 5B』 세 권이고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를 다루고 있는 교재는 『이화한국어 3-1』, 성균관대학교의 『배우기 쉬운 한국어』 4급, 『서강 한국어4B』, 『연세한국어 3-2』, 서울대학교의 『한국어2』, 경희 『한국어 중급Ⅱ』이다. 보조용언 ‘-아/어 치우다’를 다룬 교재는 제일 적은데 『이화한국어 6』과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고급Ⅱ』 뿐이다.

교재에 나타나는 빈도수를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문법적으로도 활용에 제약이 적은 ‘-아/어 버리다’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고 ‘-아/어 치우다’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교재의 급수를 살펴보면 ‘-아/어 버리다’만 초급 교재에서도 다루고 고급교재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아/어 내다’와 ‘-아/어 치우다’는 모두 고급교재에서만 다루고 있다.

다음은 종결 보조용언별로 교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 표로 귀납하여 알아보았다. 표에서의 의미 설명은 상의 의미가 표시되어 있는지, 양태의미는 모두 제시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연결어미는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결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어미의 형태를 표시하였는지를 말하고 결합가능용언 설명은 종결보조용언과 결합이 가능한 용언을 제시해 주었는지를 말하고 예문 제시는 보조용언을 사용한 예문이 제시 되어 있는지를 말한다.

〈표 3〉 종결 보조용언 ‘-아/어 내다’의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 의미 설명 | | 연결어미 | 결합 가능 용언 설명 | 예문 제시 |
|-----|-------|-----------------------------|------|----------------|-------|
| | 상 | 양태 | | | |
| 이화대 | ○ | △ ¹⁰⁾ 어려움의 극복 | ○ | ○ | ○ |
| 서강대 | | | ○ | | ○ |
| 경희대 | ○ | | ○ | | ○ |

보조용언 ‘-아/어 내다’에 대한 문법 설명에서 세 교재 모두 간단하게 설

10) △ 는 모든 의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 중의 일부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표시한다.

명이 되어 있다. 세 교재 모두 기본 문법정보로 연결어미와 예문은 제시 되어 있지만 『이화한국어 5』에서는 상 의미는 제시되어 있으나 양태의미는 ‘어려움의 극복’ 한개만 제시되어 있고 결합 가능한 용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해 주고 있다. 서강대학교의 『서강 한국어 5B』에서는 기본 정보만 기재 되어 있고 문법 설명은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고급Ⅱ』 교재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의미만 기술되어 있다.

〈표 4〉 종결 보조용언‘-아/어 버리다’의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 의미설명 | | 연결어미 | 결합 가능 용언 설명 | 예문제시 |
|------|------|----|------|----------------|------|
| | 상 | 양태 | | | |
| 이화대 | ○ | △ | ○ | | ○ |
| 서강대 | | | ○ | | ○ |
| 경희대 | | | ○ | | ○ |
| 연세대 | ○ | ○ | ○ | | ○ |
| 성균관대 | | | ○ | | ○ |
| 서울대 | | | ○ | | ○ |

〈표 4〉에서 보듯이 상 의미와 양태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는 교재는 이화대 교재와 연세대 교재뿐이고 이화대 교재에서는 양태의미의 일부분만 제시해 주었고 연결어미와 예문은 모든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고 결합 가능한 용언에 대한 설명은 어느 교재에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 5〉 종결 보조용언‘-아/어 치우다’의 교재에서의 제시 내용

| 교재 | 의미설명 | | 연결어미 | 결합 가능용언 설명 | 예문 제시 |
|-----|------|----|------|---------------|-------|
| | 상 | 양태 | | | |
| 이화대 | ○ | | ○ | ○ | ○ |
| 경희대 | ○ | | ○ | | ○ |

〈표 5〉에서 보듯이 두 교재 모두 상 의미, 연결어미, 예문이 제시되어 있고 결합 가능한 용언에 대한 설명은 이화대 교재에만 제시되어 있다. 양태의미에 대한 내용은 어느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학교 교재에서 다루지고 있는 종결형 보조용

언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어 버리다’ 만 모두 제시되어 가르치고 있지만 ‘-아/어 내다’, ‘-아/어 치우다’는 다루고 있는 교재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연결어미와 예문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습자가 종결보조용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상, 양태의미, 결합이 가능한 용언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교재의 특성상 교재에서 다룰 수 있는 보조용언에 관한 설명이 제한적이고 새로운 보조용언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헷갈려 하여 습득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어느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급, 고급학습자들에게는 더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교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주고 교사나 학습자가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한 종결 보조용언 교수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제 2 절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교육 자료

이영(2006)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는 기초정보(등급, 발음 정보), 형태 정보, 의미 정보, 통사 정보, 의미관계 정보, 대역 정보, 용례 등이라고 보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기술의 기본 틀을 <표 6>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기술의 기본 틀

| 항목 | 구성 | 자질 요소 |
|---------|----------|--------------------------|
| Ⅰ 기초정보 | 1. 등급 표시 | 어떤 수준의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단어인가? |
| | 2. 발음 표시 | 그 보조용언은 어떻게 발음하는가? |
| Ⅱ 형태정보 | 3. 활용 정보 | 그 단어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
| Ⅲ 의미 정보 | 4. 정의 | 그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 | 5. 적용 범위 |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
| | |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말인가? |
| | | 어떤 사회, 분야에서 쓰는 말인가? |
| | | 입말체에 쓰이는가? 글말체에서 쓰이는가? |

| | | |
|------------|--------------|---|
| | 6. 화용적 의미 | 화자의 어떤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가? 어떤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가? 어떤 화행적 의미를 나타내는가? |
| IV 통사 정보 | 7. 연결어미 정보 | 앞에서 어떤 연결어미와 결합하는가? |
| | 8. 선택 제약 | 어떤 본용언의 제약이 있는가? |
| | 9. 문법 제약 | 인칭, 시제, 부정 등 문법적 제약이 있는가? |
| V 의미 관계 정보 | 10. 유의 반의 관계 |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는 보조용언이 있는가?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가? |
| | 11. 자주 쓰는 표현 | 자주 쓰이는 표현은 무엇인가? |
| VI 대역 정보 | 12. 중국어 대역 | 그 단어가 중국어의 어떤 단어와 대응되는가? |
| VII 용례 | 13. 용례 | 구체적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

위의 기본 틀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기술의 기본 틀로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종결형 보조용언 기술의 기본 틀로도 활용이 가능하나 왕단(2005:81)에서 제시한 “형용사 기술을 위한 기본 틀”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형용사 기술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기술하였다. 이 틀을 이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만들 때 그 대로 응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또한 문법학습에서 통사적 특징을 먼저 학습하게 되는 학습자가 이용하기에는 기술 순서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보조용언 기술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술 순서를 기초정보-통사 정보-의미 정보 순으로 정리하고 구성을 보다 세세한 범위로 나누어 보조용언의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료인 만큼 중국어 설명을 첨가하여 기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7>와 같다.

〈표 7〉 보조용언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자료 구성 표

| 구성 | 자질 요소 |
|----------|-----------------------------|
| 1. 등급 표시 | 어떠한 수준의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 |
| 2. 발음 표시 | 발음은 어떻게 하는가? |

| | |
|------------------------|--|
| 3. 기본의미 | 보조용언이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기본의미는 무엇인가? |
| 4. 결합가능 용언 | 어떠한 용언과 결합이 가능한가? |
| 5. 연결어미 | 본용언과 결합되는 연결어미는 어떤 것인가? |
| 6. 문장주어 | 문장에서의 주어는 어떤 제약이 있는가? |
| 7. 부정문 | 문장을 부정으로 만들 때 어떤 부정요소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
| 8. 문장 부사와의 결합 | 보조용언과 어울리는 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
| 9. 상 의미 | 보조용언이 나타내는 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0. 양태의미 | 보조용언이 나타내는 양태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1. 같은 의미범주 보조용언 |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서로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
| 12. 자주 쓰는 표현 | 보조용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용언의 교수 학습 자료는 보조용언의 기본 틀과 중국어 대응표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한다. <표 7>을 활용하여 보조용언의 문법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표의 문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연습문제와 활용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준다.

아래에 제시한 종결 보조용언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의 문법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 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교재나 문법서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나 학습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종결 보조용언에 관련된 적용대상,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표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사의 도움 없이도 이 표에 의거하여 연습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어번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초급단계의 학습자도 충분히 선행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표 8〉 ‘-아/어 내다’의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

| 구성 | 자질 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1. 등급 표시 等级 | 중급~고급 中级~高级 | | | | | | | | | | | | | | | | | | | | |
| 2. 발음 표시 发音 | 아/어 내다 | | | | | | | | | | | | | | | | | | | | |
| 3. 기본의미 基本意思 |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表示以自己的能力完成了前述的事情或动作 | | | | | | | | | | | | | | | | | | | | |
| 4. 결합가능 용언 可以结合的动词 | [+어려움] [+생김]의 타동사와 결합 [+困难] [+生成]的他动词 참다, 찾다, 만들다, 살리다, 이기다, 이끌다, 이루다, 해결하다, 받다, 감당하다, 견디다, 얻다, 고치다, 구하다, 굶다, 그리다, 기르다, 당하다, 되살리다, 듣다, 알다, 연주하다, 추리다, 꾸미다, 빚다 등 | | | | | | | | | | | | | | | | | | | | |
| 5. 연결어미 连接語尾 | -아 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ㄱ, ㄴ’인 경우 -어 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ㄷ, ㅌ’인 경우 -여 내다: ‘하다’에 주로 사용되어 ‘해’로 쓰인다. <table><tr><th>결합용언</th><th>막다</th><th>얻다</th><th>하다</th></tr><tr><td>-아/어 내다</td><td></td><td></td><td></td></tr><tr><td>-아</td><td>막아 내다</td><td></td><td></td></tr><tr><td>-어</td><td></td><td>얻어 내다</td><td></td></tr><tr><td>-여</td><td></td><td></td><td>해 내다</td></tr></table> | 결합용언 | 막다 | 얻다 | 하다 | -아/어 내다 | | | | -아 | 막아 내다 | | | -어 | | 얻어 내다 | | -여 | | | 해 내다 |
| 결합용언 | 막다 | 얻다 | 하다 | | | | | | | | | | | | | | | | | | |
| -아/어 내다 | | | | | | | | | | | | | | | | | | | | | |
| -아 | 막아 내다 | | | | | | | | | | | | | | | | | | | | |
| -어 | | 얻어 내다 | | | | | | | | | | | | | | | | | | | |
| -여 | | | 해 내다 | | | | | | | | | | | | | | | | | | |
| 6. 문장주어 句子的主语 | 인칭: 제약 없음 의지를 가지는 주어, 소수의 무정주어도 가능(컴퓨터, 시스템 등) 主语要有意志(主要指人), 偶尔也会用在电脑, 系统等 예: ① 영이가 책을 찾아냈어요. (○) ② 책상이 고쳐냈어요.(×) | | | | | | | | | | | | | | | | | | | | |
| 7. 부정문 否定句 | ○ 부정표현 ‘못’, ‘-지 못하다’, ‘-지 말다’와 결합한다. 和否定词‘못’, ‘-지 못하다’, ‘-지 말다’结合 예: ① 흙집은 폭우를 못 이겨 내고 씻겨 내려갔다. ② 영이는 그날 일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p>③ 가: 영이가 기억력이 전부 돌아온 것은 아닌가 봐요. 험한 일을 당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p> <p>나: 네, 차라리 그 날일은 영원히 기억해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p> |
| | <p>○ ‘안’, ‘않았다’와 결합이 제약됨. 不能和否定词 ‘안’, ‘않았다’ 结合</p> <p>예: ① 영이는 그날 일을 안 기억해 냈다.(×) ② 영이는 그날 일을 기억해 내지 않았다.(×)</p> |
| 8. 문장 부사와의 결합 与副词的结合 | <p>○ 굳은 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어(表示坚强意志的副词): 기어이, 기어코, 반드시, 기필코, 꼭,</p> <p>예: ① 의사선생님은 아기와 산모를 꼭 살려 내겠다고 다짐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② 가: 미션 씨, 이번 수영대회준비는 잘 하고 있죠? 나: 네, 열심히 훈련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 내겠어요.</p> |
| | <p>○ 어려운 과정의 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종국에 가서 그것이 성취되는 부사어(表示经过漫长又艰难的过程, 到最后才实现的副词): 끝내, 드디어, 마침내, 급기야, 필경</p> <p>예: ① 가: 어제 양 팀 모두 실력이 만만치 않던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 연장전에 가서는 끝내 우리 팀이 승리해 냈어요. 너무나 짜릿했어요. ② 가: 영토분쟁 문제를 끝내 해결해 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 긴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p> |
| | <p>○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음을 강조하는 부사어(表示漫长的过程很艰难的副词): 억지로, 겨우, 가까스로, 간신히,</p> |

| | | |
|----------------------|--|---|
| | <p>힘들여</p> <p>예: ① 가: 이 책은 어디서 찾았어요? 오래된 책이라 찾기 힘들었을 텐데요.</p> <p>나: 그 책은 미션이가 전국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겨우 찾아 낸 귀한 책이야.</p> <p>② 가: 철수가 빌려간 돈을 갚았어?</p> <p>나: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간신히 받아 냈어요.</p> <p>○ 어려움을 암시하거나 쉬움을 나타내는 부사어(表示暗示有困难或很轻松的副词): 고심 끝에, 쉽게, 용케도 등</p> <p>예: ① 연구진들은 고심 끝에 새로운 원단을 만들어 냈어요.</p> <p>② 가: 선생님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죠?</p> <p>나: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용케도 정답을 잘 찾아 냈구나.</p> | |
| | <p>종결 终结</p> <p>예: 가: 유리창에 먼지가 수북하던데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p> <p>나: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닦아 냈습니다.</p> | |
| 9. 상 의 미 相 | | |
| 10. 양태의미 样太(表示的心理状态) | 끝까지 하다 (做到最后) | <p>가: 그 사건은 오래 전부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벌써 해결 되었어요?</p> <p>나: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해결해 냈어요.</p> |
| | 자발성 (自发性) | <p>가: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진학의 꿈을 꼭 이루어 내겠어요.</p> <p>나: 영이 씨처럼 열심히 공부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p> |
| | 기대부응 (不辜负期望) | <p>가: 에디슨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p> |

| | | |
|--------------------------------|--|---|
| | | 나: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해 냈습니다. 가: 예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나: 다행히 힘든 수술을 잘 이겨 내서 지금은 비교적 건강합니다. |
| | 어려움 극복(克服困难) | |
| 11. 같은 의미범주 보조 용언 同类范畴的补助用言 | ‘-아/어 버리다’ | 생각에 어긋남(与想象的不一樣), 부담제거(解除负担), 악 처리(处理不当) |
| | ‘-아/어 치우다’ | 부담제거(解除负担), 종결의 강조(强调终结), 화자의 의지(话者的意志), 시원함(痛快, 干脆) |
| 12. 자주 쓰는 표현 经常使用的表达 | 견디어(견뎌) 내다→坚持住; 구해 내다→救出; 막아내다→抵制住; 깎아내다→削出; 만들어 내다→制造出; 베어내다→切出; 찍어내다→印出; 흠쳐 내다→偷到; 받아내다→收到(讨要)등 | |

〈표 9〉 ‘-아/어 버리다’의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

| | |
|-----------------------|---|
| 구성 | 자질 요소 |
| 1. 등급 표시 等级 | 중급~고급 中级~高级 |
| 2. 발음 표시 发音 | 아/어 버리다 |
| 3. 기본의미 基本意思 |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表示前面的动作已经结束。 |
| 4. 결합가능 용언 可以结合的动词 | <p>결합이 가능한 용언: 대부분 동사, 일부 〈형용사+지다〉형 동사와 “명사+하다”형 동사, “-ㄴ다”의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p> <p>不可结合谓词: 和大部分动词结合, 也和一部分〈형용사+지다〉型动词, “명사+하다”型动词, 可以和“-ㄴ다”结合的形容词结合。</p> <p>결합가능 형용사: 개다, 크다, 굵다, 야위다, 낡다, 찌들다, 헐다, 그르다, 눅다, 눅다, (머리가)돌다, 실수하다 등...</p> |

| | <p>결합이 불가능한 용언:</p> <p>대부분의 형용사, ‘버리다’와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로 생각되는 [+생김]이나 [+긍정]의 자질을 가지는 동사</p> <p>不可結合謂詞: 大部分形容詞, 与‘버리다’的方向性相反的 [+生成], [+乐观]的動詞。</p> <p>[+긍정]의 자질: 가리키다, 꺾다, 꾸미다, 듣다, 배우다, 부리다, 생기다, 이루다, 조르다, 주다, 준비하다, 지키다</p> <p>반대방향성: 다가오다, 다다르다</p> <p>※단 일정한 문장부사와 결합하거나 일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p> <p>但, 和适当的副詞結合或有适当的前提條件的話, 也有可能結合。</p> <p>예: ① 나는 {일부러/일찌감치} 그런 어려움을 전부 꺾어버렸다.</p> <p>② 가: 영이는 너의 생일에 아무 선물도 안 해줬잖아. 너도 영 이한테 선물 안 해줘도 돼. 나: 알밋긴 하지만 그냥 선물을 줘 버리려고.</p> | | | | | | | | | | | | | | | | |
|------------------|--|------------------|-------|----|----|----|-------|--|--|----|--|--------|--|----|--|--|-------|
| 5. 연결어미 连接語尾 | <p>-아 버리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p> <p>-어 버리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ㅓ, ㅕ’인 경우</p> <p>-여 버리다: ‘하다’에 주로 사용되어 ‘해’로 쓰인다.</p> <table border="1"> <tr> <th>결합용언 -아/어 버리다</th> <th>차다</th> <th>먹다</th> <th>하다</th> </tr> <tr> <td>-아</td> <td>차 버리다</td> <td></td> <td></td> </tr> <tr> <td>-어</td> <td></td> <td>먹어 버리다</td> <td></td> </tr> <tr> <td>-여</td> <td></td> <td></td> <td>해 버리다</td> </tr> </table> | 결합용언 -아/어 버리다 | 차다 | 먹다 | 하다 | -아 | 차 버리다 | | | -어 | | 먹어 버리다 | | -여 | | | 해 버리다 |
| 결합용언 -아/어 버리다 | 차다 | 먹다 | 하다 | | | | | | | | | | | | | | |
| -아 | 차 버리다 | | | | | | | | | | | | | | | | |
| -어 | | 먹어 버리다 | | | | | | | | | | | | | | | |
| -여 | | | 해 버리다 | | | | | | | | | | | | | | |
| 6. 문장주어 句子的主語 | <p>인칭: 제약 없음</p> <p>유정주어와만 결합이 자연스럽다. 드물게 무정주어도 가능하다.</p> <p>主要由有情物做主語, 但也和少数的无情物結合(如風, 雨等)</p> | | | | | | | | | | | | | | | | |

| | |
|-------------------------|--|
| | <p>예: ①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어요. ② 바람이 멈추어 버렸어요.</p> |
| 7. 부정문 否定句 | <p>○ 부정표현 ‘않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와 결합한다. 和否定词 ‘않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 结合</p> <p>예: ① 가: 아무리 작은 의견도 무시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나도 그러고 싶지만 말처럼 잘 안되는구나. ② 가: 지난 일은 다 털어 버리고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꾸나. 나: 다른 일은 그렇다 해도 그때 배신했던 일은 도저히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③ 가: 남은 밥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나: 그러면 다 먹어버리지 말고 조금 남겨두자.</p> <p>○ ‘안’, ‘못’과 결합이 자연스럽게 않지만 예문과 같은 일부 경우에는 가능하다. 和否定词 ‘안’, ‘못’ 结合不太自然, 但如例句一样的时候可以结合。</p> <p>예: ① 죽을 때까지도 나는 그 날 일을 안 잊어 버리겠다. ② 가: 전쟁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고통스러우시죠? 나: 전쟁터의 참담함은 죽을 때까지 못 잊어 버릴 것ियो.</p> |
| 8. 문장 부사와의 결합 与副词的结合 | <p>○ 대부분의 부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可以和大部分副词结合使用)</p> <p>예: ① 가: 원전사고는 이대로 무작정 덮어 버릴 수 가 없습니다. 나: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② 가: 어떻게든 내일까지는 과제를 끝내 버려야 해요. 나: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끝낼 수 있을</p> |

| | | |
|------------------------------|---|--|
| | 거예요. | |
| | ○ 자주 결합되어 쓰이는 부사(经常结合使用的副词): 차라리, 빨리, 금방, 일부러, 결국, 미리, 나도(아무도) 모르게 | |
| | 예: ① 가: 차라리 친구들에게 말해 버리는 건 어떨까? 나: 안돼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② 가: 빨리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나: 알겠어요. 금방 가요. | |
| | ○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不能和带有未完了的意思的副词一起使用) | |
| | 예: ① 가: 신문은 다 읽었어요? 나: 조금 읽어 버렸어요.(×) | |
| | ② 남은 밥을 아직 먹어 버렸어요. (×) | |
| 9. 상 의 미 相 | 종결 终结 예: 가: 요즘엔 영수 씨와 연락 안 해요? 나: 부담스러워서 제가 먼저 연락을 끊어 버렸어요. | |
| 10. 양태 의 미 样太(表示的心理状态) | 생각에 어긋남 表示发生了跟预料不一样的情况。 | 가: 오늘은 영이가 청소당번이 아니에요? 나: 맞는데 어떤 일인지 집에 가 버렸어요. |
| | 부담제거 表示摆脱了负担。 | 가: 이번 주에는 프로젝트를 모두 끝내 버려야겠어요. 나: 그러면야 속 시원하고 좋지요. |
| | 악 처리 表示发生的情况, 让人不满意。 | 가: 왜 이제야 출근 하는 겁니까? 나: 늦잠을 자 버려서... 주의하겠습니다. |
| 11. 같은 의 미범주 보조 용언 同类范畴的补 | ‘-아/어 내다’ | 끝까지 하다(做到最后), 자발성(自发性), 기대부응(不辜负期望), 어려움 극복(克服困难) |
| | ‘-아/어 치우다’ | 부담제거(解除负担), 종결의 강조(强调) |

| | | |
|-------------------------|---|---------------------------------|
| 助用言 | | 终结), 화자의 의지(话者的意志), 시원함(痛快, 干脆) |
| 12. 자주 쓰는 표현 经常使用的表达 | 차 버리다→踢掉, 욕 해버리다→骂, 지쳐 버리다→累坏了. 늡어 버리다→老掉, 해버리다→做掉/完/光, 먹혀 버리다→吃掉, 늦어 버리다→晚/迟到, 놓쳐 버리다→错过/掉, | |

〈표 10〉 ‘-아/어 치우다’의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

| 구성 | 자질 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1. 등급 표시 等级 | 중급~고급 中级~高级 | | | | | | | | | | | | | | | | | | | | | | |
| 2. 발음 표시 发音 | 아/어 치우다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본의미 基本意思 |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쉽고 빠르게 해 버림을 나타내는 말이다. 表示前面所指的行动完成的迅速又轻松。 | | | | | | | | | | | | | | | | | | | | | | |
| 4. 결합가능 용언 可以结合的动词 | 몇몇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타동사와만 결합이 가능 只和少数的有行为能力的他动词结合. 먹다, 팔다, 밟다, 바꾸다, 걷다, 갈다, 털다, 뒹다, 마시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5. 연결어미 连接語尾 | -아 치우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인 경우 -어 치우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ㅓ, ㅕ’인 경우 -여 치우다: ‘하다’에 주로 사용되어 ‘해’로 쓰인다. <table border="1" data-bbox="461 1271 1192 1445"> <tr> <th>결합용언</th><th>밟다</th><th>먹다</th><th>하다</th></tr> <tr> <td>-아/어 치우다</td><td></td><td></td><td></td></tr> <tr> <td>-아</td><td>밟아 치우다</td><td></td><td></td></tr> <tr> <td>-어</td><td></td><td>먹어 치우다</td><td></td></tr> <tr> <td>-여</td><td></td><td></td><td>해 치우다</td></tr> </table> | | | 결합용언 | 밟다 | 먹다 | 하다 | -아/어 치우다 | | | | -아 | 밟아 치우다 | | | -어 | | 먹어 치우다 | | -여 | | | 해 치우다 |
| 결합용언 | 밟다 | 먹다 | 하다 | | | | | | | | | | | | | | | | | | | | |
| -아/어 치우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 밟아 치우다 | | | | | | | | | | | | | | | | | | | | | | |
| -어 | | 먹어 치우다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해 치우다 | | | | | | | | | | | | | | | | | | | | |
| 6. 문장주어 句子的主语 | 인칭: 제약 없음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주어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只和有行为能力的主语结合. 예: ① 엄마는 내 방을 깨끗이 걷어 치웠다. ② 나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어 치우고 또 달라고 하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7. 부정문 否定句 | <p>○ 부정표현 ‘안’, ‘못’, ‘않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와 모두 결합한다.</p> <p>和否定词 ‘안’, ‘않았다’, ‘못’, ‘-지 못하다’, ‘-지 말다’ 結合</p> <p>예: ① 가: 라면을 다 먹었어? 왜 없지? 나: 라면을 아직 다 안 먹어 치웠는데.</p> <p>② 가: 애물단지 자동차는 팔았어요? 나: 아니요 아직도 못 팔아 치워서 창고에 있어요.</p> <p>③ 가: 뇌물까지 받아먹은 부장들은 왜 갈아 치우지 않았는지 참.</p> <p>나: 회사 창건 때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라 이번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p> <p>④ 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직도 다 먹어 치우지 못했다.</p> <p>⑤ 가: 아빠, 새끼 강아지들을 모두 팔아 치우지 말고 우리가 한 마리 기르면 안돼요? 나: 그럴까? 예쁜 강아지로 한 마리 기르자꾸나.</p> | |
| 8. 문장 부사와의 결합 与副词的結合 | <p>○ 대부분의 부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可以和大部分副词結合使用)</p> <p>예: ① 엄마는 가격도 안 따지고 무작정 사과를 팔아 치웠다.</p> <p>② 동생은 미리 숙제를 다 해치웠다.</p> | |
| | <p>○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不能和帶有未完了的意思的副词一起使用)</p> <p>예: ① 강아지를 아직 팔아치웠어요.(×)</p> <p>② 밥을 늘 먹어 치웠어요.(×)</p> | |
| 9. 상 의미 相 | <p>종결 終結</p> <p>예: ① 10년 전에 사났던 땅을 다 팔아 치웠어요.</p> <p>② 과자 한 봉지를 동생이 게눈 감추듯이 먹어 치웠다</p> | |
| 10. 양태 의미 | 부담제거 (解除負擔) | 엄마: 집에 밥이 있는데 피자를 시킬 수는 없잖니? |

| | | |
|-------------------------------|--|--|
| 样太(表示的心理状态) | | 아들: 아까 남은 밥을 제가 다 먹어 치웠는데요. |
| | 종결의 강조 (强调终结) | 가: 저번 달까지만 해도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아 있더니 이젠 얼마 안 남았네요. 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거의 다 팔아 치웠어요. |
| | 화자의 의지 (强调话者的意志) | 가: 사장님은 이번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직원은 과감히 갈아 치웠어요. 나: 사장님이 의지가 대단하시군요. |
| | 시원함 (痛快, 干脆) | 가: 방학숙제를 일찍 끝내니 걱정 없이 놀 수 있어서 좋지? 나: 방학하고 나서 바로 다 해 치웠더니 너무 좋아요. |
| 11. 같은 의미범주 보조용언 同类范畴的补助用言 | ‘-아/어 내다’ | 끝까지 하다(做到最后), 자발성(自发性), 기대부응(不辜负期望), 어려움 극복(克服困难) |
| | ‘-아/어 버리다’ | 생각에 어긋남(与想象的不一樣), 부담제거(解除负担), 악 처리(处理不当)를 표현 |
| 12. 자주 쓰는 표현 经常使用的表达 | 걷어치우다→收拾, 放弃, 갈아 치우다→换掉, 먹어 치우다→吃掉, 팔아 치우다→卖掉, 해 치우다→做掉, | |

다음은 상술한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습자가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연습자료를 구성하였다.

우선 결합이 가능한 용언 찾기 연습문제인데 중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연습문제는 대화문 형태로 구성이 되었으며 우선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장내용에 알맞는 서술어를 찾아 보조용언과 결합하여 문장을 완성해 내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가 문장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보조용언과 결합이 가능한 서술어를 찾아내서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또한 보조용언의

뒤에 결합할 연결어미를 선택하여 문장을 조리 있게 완성해야 함으로 보조용언의 적절한 활용 연습도 함께 할 수 있다. <표 11>은 종결 보조용언 ‘-아/어 내다’를 활용하여 구성한 실제 연습문제이다.

<표 11> ‘-아/어 내다’를 활용한 결합 가능 용언 찾기 연습

다음 보기와 같이 ‘-아/어 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기자: 수사관님,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전이 있나요?

수사관: 네, 지난 며칠 밤샘수사로 드디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① 가: 지영이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다니.
나: 그만큼 훈련의 고통을 _____ 금메달도 딸 수 있는 것이지.
- ② 가: 오늘 같은 한파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 추워도 너무 추워.
나: 아무리 옷을 많이 껴입어도 이 추위를 _____ 힘들어.
- ③ 가: 저 회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규모가 작은 회사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했을까요?
나: 저 회사에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_____ . 그래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신청을 내고 지금 그 기술로 떼돈을 벌고 있어요.
- ④ 가: 왜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훌륭한 선수를 키우지 못할까요?
나: 우리나라 시스템은 아직 훌륭한 선수를 _____ 역부족인 것 같아요.
- ⑤ 가: 여기에서 재배하는 사과는 껍질도 얇고 과즙도 많이 나오고 무척 달고 맛있어요.

나: 그뿐만 아니라 저희 사과는 무 농약 재배라 껍질을 _____ 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다음은 중국어 대응표현을 활용한 의미파악 연습문제이다. 우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나타내는 서술어를 중국어로 제시하여 주고 학습자가 제시된 중국어로부터 문장에 알맞는 본용언을 찾아 내 보조용언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연습이다. 또한 <표 13>과 같이 보조용언이 쓰인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고 중국어에서 나타내는 보조용언의 문장성분에 밑줄을 그어 주어 학습자가 보조용언이 중국어에서 어떤 문장성분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유의하면서 제시된 한국어 문장을 연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습은 중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문장을 보면서 보조용언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게 되어 학습효과를 높여 줄 수 있고 결합이 가능한 용언에 대한 학습도 된다. 종결 보조용언 ‘-아/어 내다’와 ‘-아/어 버리다’를 예로 들어 보여주면 <표 12>, <표 13>와 같다.

<표 12> ‘-아/어 내다’의 중국어의 대응표현 연습을 통한 의미 파악

다음 보기와 같이 중국어를 보고 ‘-아/어 내다’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예: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좋은 성적을 거두어 냈다(成就出).

- (1) 산에서 인삼을 _____ (找出).
- (2) 낡은 벽지를 _____ 새 벽지를 붙였어요.(揭出).
- (3) 겨울의 추위를 _____ 새싹이 돋아났어요(经受住).
- (4) 고통을 끝까지 _____ (忍住).
- (5) 이번 통계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_____ (计算出).
- (6) 어린 아기는 병마를 잘 _____ 건강하게 자랐다(战胜).

〈표 13〉 ‘-아/어 버리다’의 중국어의 대응표현 연습을 통한 의미 파악

중국어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서로 관계있는 문장을 찾아 줄을 그어 연결하십시오.

- ① 本来应该早起的, 却睡懒觉了。
- ② 结婚以后女人就会慢慢变成大妈。
- ③ 不知不觉父母变老了很多。
- ④ 真想删掉关于那件事情的一切记忆。
- ⑤ 陶醉在传来的美丽旋律当中。

- | | | |
|-----------------------|---|----------------|
| ①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만 | • | • 늦어 버렸어요. |
| ②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는 어느새 • | • | • 늦잠을 자 버렸어요. |
| ③ 어느새 부모님은 많이 | • | • 아줌마가 되어 버린다. |
| ④ 그 일에 관한 모든 기억을 | • | • 취해 버렸다. |
| ⑤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 • | • 지워 버리고 싶다. |

그리고 보조용언이 사용된 문장을 부정으로 고치는 연습문제이다. 종결 보조용언은 모든 부정표현과 결합이 가능한 것이 아님으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문으로 고치는 연습이 필요하다. 부정표현에 관한 연습문제는 문단의 형식으로 비교적 긴 문장을 제시하여 종결 보조용언이 사용된 부분을 표시해 주고 같은 내용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어 종결형 보조용언이 사용될 자리를 비워두어 학습자가 문장상황에 알맞는 부정표현을 골라 써넣게 한다. 이는 중급이상 학습자를 위한 연습문제로 문단의 길이는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짧은 문장을 사용하거나 긴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4〉는 ‘-아/어 버리다’를, 〈표 15〉는 ‘-아/어 치우다’를 예로 들어 구성하였다.

〈표 14〉 ‘-아/어 버리다’의 부정표현 연습

다음 문장을 예문과 같이 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날 일만 생각하면 멍청이가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나는 마음을 잡아 버리고 세상과의 소통도 포기해 버렸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못 잊어버리겠다. 그날 있었던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멍청이가 _____ 노력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_____ 세상과의 _____ 소통도 _____ .

〈표 15〉 ‘-아/어 치우다’의 부정표현 연습

다음 문장을 예문과 같이 부정문으로 바꿔 쓰세요.

저번 주에는 가족여행으로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동생은 놀러 가기 전에 숙제를 다 해 치워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삼겹살은 너무 맛있어서 그날 저녁에 다 먹어치웠어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주변에 널어놓은 쓰레기를 말끔히 걸어 치웠어요.

저번 주에는 가족여행으로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동생은 놀러가기 전에 숙제를 해 치우지 못해서 숙제 책을 가지고 갔어요. 저녁에는 삼겹살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다 _____ 다음날에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 올 때 보니 사람들이 _____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서 그것도 모두 수거하였어요.

다음은 문장부사와의 결합을 학습하기 위한 연습문제이다. 보조용언이 사용된 문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사에 대한 연습을 시키기 위해 문장에 맞지 않는 부사를 골라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기’에는 보조용언과 함께 쓰일 수 있는 부사어가 더 많이 제공되어 학습효과를 높이고 함께 쓰이지 못하는 부사어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보조용언과 쓰일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동시에 보조용언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표 16>은 ‘-아/어 내다’를 활용한 문장 부사결합 연습의 실제이다.

<표 16> ‘-아/어 내다’를 활용한 문장 부사결합 연습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사를 고르시오.

(1) 가: 둘째 딸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면서? 성적은 잘 나온 거야?

나: () 원하는 대학 입학 성적에는 도달해 났어.

- ① 겨우 ② 가까스로 ③ 다행히 ④ 제발

(2) 가: 오늘 바이올린 연주는 실수 없이 잘 해 났어요?

나: 그래도 오늘은 () 잘 연주해 내더라고요.

- ① 어렵게 ② 쉽게 ③ 용케도 ④ 다행히

(3) 가: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실망이야.

나: 다음번에는 ()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① 꼭 ② 반드시 ③ 기필코 ④ 당연히

마지막으로 종결 보조용언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방안이다. 종결 보조용언은 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태의미도 함께 표현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교사가 종결 보조용언의 양태의미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대화문을 준비한다. 한 학생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다른 학생들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보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방과 후 과제로 양태의미가 표현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그럼으로 하여 학습자는 종결형 보조용언이 한 가지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종결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를 활용한 활동방안의 실제이다.

〈표 17〉 ‘-아/어 버리다’를 활용한 활동방안

| | |
|------|--|
| 활동주제 | 지금 기분이 어떤지 맞춰보세요 |
| 활동목표 | 보조용언 ‘-아/어 버리다’의 의미파악 및 활용 |
| 형식 | 전체활동 |
| 준비물 | 대화문 |
| 방법 | 1. 교사는 한 학생에게 대화문을 주고 읽게 한다. 2. 다른 학생들은 대화문을 듣고 화자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3. 교사는 학생들에게 화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 학생들이 화자의 심리상태를 추리해 내도록 한다. |
| 과제 | ‘-아/어 버리다’를 활용하여 활동카드와 같이 여러 가지 기분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표 18〉 ‘-아/어 버리다’의 활동 카드 1

| |
|--|
| <p><u>생각에 어긋남:</u></p> <p>가: 민수 씨, 도매시장에는 잘 다녀왔어요? 나: 갔는데 월요일이라 문을 다 닫아 버렸더군요. 일찍 알았더라면 주말에 갈걸 그랬어요.</p> <p>김수영: 제임스 씨는 한국어 시험을 잘 봤어요? 제임스: 시험전날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포기해 버렸어요.</p> <p>가: 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나: 큰 고기 한 마리 잡을 뻔 했는데 아깝게 놓쳐 버렸어요.</p> |
|--|

〈표 19〉 ‘-아/어 버리다’의 활동 카드 2

부담제거:

가: 과제를 빨리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과제를 했어요?

나: 저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그날 다 끝내 버렸어요.

가: 저번에 들여온 옷들은 다 팔았어요?

나: 고객들 반응이 좋아서 거의 다 팔아 버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나: 예전에 얼굴에 있던 점을 다 빼 버려서 그런가 봐요.

〈표 20〉 ‘-아/어 버리다’의 활동 카드 3

악 처리:

가: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려 버려서 깨졌어요.

나: 어머 다른데 다친 곳은 없어요? 조심하세요.

가: 노트북을 잠깐 빌려줄 수 있어요?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동생이 노트북을 고장 내 버려서요.

나: 그럼요. 얼른 보내세요.

부장님: 이 대리, 출장보고서 다 작성했지요?

이대리: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깜빡해 버렸습니다. 빨리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종결형 보조용언이 쓰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대조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문법 활용자료를 만들어 보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 보조용언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의해 종결 보조용언의 유형을 정리했다. 종결 보조용언인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를 선정하여 교육에 적합하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정리하였다. 그것을 토대로 한국어 종결 보조용언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표로 구성하였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어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 짐을 나타내는 말로서 [+어려움], [+생김]의 타동사와 결합이 가능하며 인칭에 제약 없이 의지를 가지는 주어와 결합이 가능하며 소수의 부정주어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부정표현 ‘못’, ‘-지 못하다’, ‘-지 말다’와 결합하고 ‘안’, ‘않았다’와는 결합이 제약된다. 굳은 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어, 어려운 과정의 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중국에 가서 그것이 성취되는 부사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음을 강조하는 부사어, 어려움을 암시하거나 쉬움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결합이 자연스럽다. 또한 종결의 상 의미를 가지며 양태의미에는 끝까지 하다, 자발성, 기대부응, 어려움 극복이 있는데 주로 중국어의 결과보어(结果补语) ‘住’, ‘过’, ‘出’, ‘到’ 등에 대응하거나 특별히 대응되는 성분이 없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아/어 버리다’는 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대부분동사, 일부 ‘형용사+지다’형 동사와 ‘명사+하다’형 동사, ‘-ㄴ다’의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형용사, ‘버리다’와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로 생각되는 [+생김]이나 [+긍정]의 자질을 가지는 동사와는 결합이 제약된다. 보통 유정주어와 결합이 자연스럽지만 드물게 부정주어도 가능하며 부정표현 ‘않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와 결합이 자연스럽고 ‘안’, ‘못’과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일부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

의 부사와 결합이 자유로운데 자주 결합되어 쓰이는 부사어에는 차라리, 빨리, 금방, 일부러, 결국, 미리, 나도(아무도) 모르게 등이 있다. 그러나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종경의 상 의미를 가지며 생각에 어긋남, 부담제거, 악 처리의 양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어에서는 주로 결과보어 ‘掉’, ‘完’, ‘光’과 대응하는데 여기에서도 결과보어 ‘掉’의 의미와 가장 흡사하다.

‘-아/어 치우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쉽고 빠르게 해 버림을 나타내는 말이다. 몇몇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타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며 결합이 가능한 주어도 행위수행능력이 있는 주어만 가능하다. 부정표현 ‘안’, ‘못’, ‘않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와 모두 결합하며 대부분의 부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종결의 상 의미를 가지며 부담제거, 종결의 강조, 화자의 의지, 시원함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어의 결과보어 ‘掉’, ‘完’에 대응한다.

또한 정리한 문법 정보를 활용한 교육 자료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습자가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연습자료를 구성하였다.

이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 종결 보조용언에 관한 교수 학습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종결 보조용언을 학습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문법 서적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종결 보조용언에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구성되어 있어 다른 부류의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나 타 언어권의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추후로 미뤄본다.

【참고문헌】

1. 학술지, 논문

- 고영근, 남기심. (200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탐출판사.
- 국립국어원.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 대사전 하 스~ㅎ』. 두산동아.
- 권순구. (2006).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 『語文研究』, 51, pp.233-252.
- 김소연. (2003). 「보조용언 ‘버리다, 보다, 가다, 주다’의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신. (2007). 「완료표현 ‘-고 말다’와 ‘-어 버리다’의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옥. (2002). 「國語 補助動詞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補助動詞 ‘버리다’와 ‘치우다’가 쓰인 구문에 대한 統辭論的·意味論的 研究」. 『語文研究』, 34(3), pp141-166
- 배수자. (2007).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 빈. (2011). 「한국어 조동사와 중국어 대응표현 대조 연구」.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세모들. (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오일륜. (2011).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보조동사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2009). 「한국어 보조용언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 (2009). 「한국어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있다, 가다, 오다’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소연. (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진행상 습득 연구 - 보조용언 ‘-고 있다’, ‘-어 가다’, ‘-어 오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 (200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행. (1996). 『한국어 문법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명선. (2009).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주. (2003).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방안 연구 - 의미 교육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종복. (1996). 「종결 보조동사의 의미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사만. (2008). 「보조동사 {내다}와 {버리다}의 양태적 기능 대비」. 『語文學』, 101, pp25-54.

2. 교재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한국어 고급 II』. (주) 교학사.

_____. (2012). 『한국어 중급 II』. 새한문화사.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9) 『서강 한국어 5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_____. (2011) 『서강 한국어 4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한국어 2』, 문진미디어.

성균어학원(2010), 『배우기 쉬운 한국어 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한국어 3-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2), 『이화 한국어』, 3-1, 5, 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 참고 사이트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 시스템 <http://124.137.201.234:8080/search>

네이버 <http://www.naver.com>



ABSTRACT

The Study on Learning Materials of Ending Auxiliary Predicate for Chinese Students

Li, Sha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Chinese students need to understand about Korean deeply so that they could communicate with Korean language.

This study is for making learning materials of ending auxiliary predicate for Chinese students who are studying Korean.

In the first chapter I will write about the purpose for studying ending auxiliary predicate through preceding research and in the second chapter I looked through the feature and type of auxiliary predicate and chose that I would study on.

In the third chapter, I organized the feature of ending auxiliary predicate and found the Chinese expression that can be used like Korean ending auxiliary predicate by those meaning.

I got to know that Korean language and chinese language are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hinese expression that can be used like Korean ending auxiliary predicate and also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only with their meaning.

In the chapter four, I organized that Materials of Ending Auxiliary Predicate for Chinese Students based on the contents that I studied in former chapters. I made the chart with the Learning Materials of the information about grammar in order to well-understanding the Ending Auxiliary Predicate. Also the chart has the feature of meaning and it is including the Chinese translate. Lastly, I suggested the exercises and activities that can be used with the chart information.

【key word】 Korean education, ending auxiliary predicate, organizing learning materials, Chinese students, Chinese expression that can be exchanged by Korean grammar, -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 learning materials

中 文 摘 要

为中国人的韩国语终结补助用言教授学习资料构成研究

汉城大学 大学院

韩国语文学科

韩国语教育专业

李 善

如果母语不是韩国语的中国学生想和韩国人自由交谈的话需要对韩国语有充分的了解。为了让学生更了解韩国语，可以有很多的教学方法，在本稿中挑选终结补助用言教授学习资料构成来研究。

第一章说明了本研究的目的和必要性，先行研究。第二章研究终结补助用言的特性和种类，选定本稿要研究的终结补助用言。

第三章整理了终结补助用言的文法特征，对照意思特征的中国语对应表现。因为韩国语和中国语的构成和特性不一样，所以找不到和韩国语终结补助用言完全对应的中国语里的文章成分。所以光靠翻译是没有办法把正确地传达包含的内容。

第四章根据前面所研究的内容，构成了为中国人的韩国语终结补助用言教授学习资料。想要让学生更轻松的理解终结补助用言所包含的很多意思，整理出了韩国语终结补助用言教授学习资料表。表格里包含终结补助用言的文法特征和意思特征，还为中国人添加了中国语说明。最后添加了可以应用表格的练习题的用例，增加学习效率。

【摘要】韩国语教育，终结补助用言，教授学习资料构成，中国人学习者，中国语对应表现，-아/어 내다, -아/어 버리다, -아/어 치우다, 教育资料